

메가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심리 상담 / 치료
이경민
존스 홉킨스 대학원 석사
71.240.6313
rachellee@sunstonecounselors.com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16호

Thursday, June 12 2025 A

트럼프 폭동 단호하게 대처, 반란법 언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해 촉발된 LA 시위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에 동원된 군 병력이 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 시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반란 행위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1807년 제정된 미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무정부 상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 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다. 이는 미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의 핵심적인 예외 조항으로,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게 설계됐다. 1992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LA 폭동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폭동 진압을 위해 연방군을 투입한 것



10일 오후 LA다운타운의 에드워드 R. 로이발 연방 건물을 경비하던 주 방위군이 진압 대형으로 시위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BLM 운동' 때도 반란법 검토했다 접어
'주방위군 투입 시한, 위협 제거 때까지'

이 가장 최근에 발동한 사례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BLM(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동원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반대와 극심한 정치적 논란 속에 실제 발동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란법 발동 여부와 관련해 "두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젯밤도, 전날 밤도 끔찍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보셨듯 망치를 든 시위대가 도로를 깨부수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경찰, 군인들에게 던졌다"며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LA는 몇 달 전 (대형 산불로) 모든 주택이 소실된 것처럼 불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장난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병대 투입이 상황을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전혀 없다"며 "우리는 어젯밤 대단한 일을 했다. 많은 차량이 연기와 화염에 휩싸이고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왔지만 오늘 아침은 아주 평온하다"고 했다. 주방위군을 언제까지 주둔시킬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간단하다"고 답했다. 김형구 기자

중국 함정 연말까지 400척 불어나

미국은 296척뿐

존 펠란 해군성 장관이 "중국의 해군력이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동맹을 활용한 해군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펠란 장관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중국공산당은 올해 말까지 해군 함대에 거의 400척의 함정을 보유해 중대한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은 계속해서 함대를 확장하고, 첨단 잠수함을 더 건조하며, 분쟁 수역에서 더 도발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해군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투함 수에서 미국 해군을 능가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보유함 군함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 296척이었으며, 2025 회계연도 예산 제출 계획 상 2030 회계연도 말까지 294척(퇴역 노후함 등 포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수영 기자

"북한,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가 거부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엔케이(NK)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를 여러 차례 전달하려고 시도했으나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뉴욕 채널'로 불리는 주유엔 북한대표부 외교관들이 그 당사자로 추

정된다. 연방 국무부와 백악관은 관련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측의 교류가 활발했던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지금은 김정은이 바뀐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원하지만, 과거 실패를 거울삼아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또한 과거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회담 실패로 김정은이 받았던 정치적 타격을 고려하면 친서의 공개는 물론 친서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모두 세 차례 만나 회담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북한의 무반응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사실상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시간을 끌며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김욱재 기자

워싱턴지역 물가 안정세

워싱턴 지역(Washington-Arlington-Alexandria, DC-VA-MD-WV)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BLS)가 11일(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지역 CPI는 이번 조사 대상 9개 권역 중 달라스 지역(Dallas-Fort Worth-Arlington, TX) 0.9%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다. 볼티모어 지역(Baltimore-Columbia-Towson, MD)은 지난달 조사에서 전년동월 대비 3.0% 상승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국 CPI는 전년동월과 동일한

2.4%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달 상승률(2.3%)보다 오히려 커졌으나 시장 전망치(2.4%)에 부합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재정적자 우려가 이어지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연준은 금리인하 인상 또는 금리동결을 결정할 때 CPI물가와 PCE 물가를 참고한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

김욱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NMLS #: 2425871

융자 가능한 주

- * 버지니아
- * 메릴랜드
- * 워싱턴 DC
- * 뉴저지
- * 조지아
- * 웨스트 버지니아
- * 노스 캐롤라이나
- * 사우스 캐롤라이나
- * 델라웨어
- * 알라바마
- * 플로리다
- * 테네시
- * 미시간
- * 캘리포니아
- * 펜실베이니아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외적에 침공당한 LA 해방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외적에 의한 침공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육군 기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미국의 도시가 외국의 적에게 침공당하고 정복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평화와 공공질서, 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 공격으로 보고, 외국 깃발을 든 폭도들이 미국에 대한 침공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과 LA 시장을 무능하다고 비판하며, 그들이 말쑥꾼과 선동가, 반란주의자를 고용해 연방법을 무효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범죄 집안자들의 도시 점



10일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 육군 기지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령을 돕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 집행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시위 현장에 파견한 결정을 재차 옹호했다. 그는 “수 세대에 걸친 육군 영웅들이 먼 땅에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나라가 침략과 제3세계식 무법으로 파

괴되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LA 시위대가 벽돌과 망치로 깨진 보도블록을 경찰에게 던지고, 화염병으로 차량을 불태우는 등의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을 방탄복과 얼굴 보호장비를 착용한 전문 시위꾼이라고 묘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동물이며, 다른 나라 깃발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지만 성조기는 불태울 뿐”이라고 말하고, 성조기를 불태운 사람은 1년간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LA가 한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국제범죄조직과 범죄 네트워크가 통제하는 쓰레기 더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LA를 해방시켜 자유롭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14일 퍼레이드 반대 시위 강력 대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과정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매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자 ‘국기의 날(Flag Day)’이기도 한 14

일에는 에이브럼스 탱크 28대와 헬기 50대, 군인 6700명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워싱턴 DC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풀뿌리 단체들의 ‘노 킹(No King, 왕은 없다) 집회’도 예정돼 있다.

VA 주지사 지명 주립대 이사 8명 의회 인준 실패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가 선임한 3개 주립대 이사 지명자 8명에 대한 의회 인준이 거부됐다. 상원 의회 특권및선거위원회 소속 다수 파인 민주당 의원들이 인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UVA와 버지니아군사대학(VMI), 조지 메이슨 대학은 이들 지명자를 즉시 해임 조치했다. 하지만, 영킨 주지사는 다음 의회 회기 시작 30일 전까지는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헌터에 나타난 블랙베어 포획 후 산간지역에 방사

버지니아 자연자원국(DWR) 경찰이 버지니아 헌터 등 페어팩스 카운티에 출몰했던 블랙 베어를 포획해 모처에 방사했다고 밝혔다.

당국에서 ‘엘탄’으로 이름 붙인 이 곰을 어디에 방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관계자들은 이 곰보다 훨씬 서쪽으로 갔다고 전했다.

VA 부지사 후보, 공립학교 교복 도입 공약

존 리드(공화) 버지니아 부지사 선거 후보가 모든 공립학교에 교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드 후보는 교복이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립학교가 보다 엄격

한 학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들을 규제할 학칙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지역 유학생 연간 14억 달러 지출

워싱턴지역 유학생들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교육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 유학생 1100만명의 5.2%가 워싱턴 지역 대학에 등록했다. 메릴

랜드(2.2%), 버지니아(1.9%), 워싱턴DC(1.1%)다.

메릴랜드 유학생은 연간 10억달러, 버지니아는 8억7200만달러, 워싱턴DC는 5억7280만달러를 지출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한인사회 ‘호국보훈’ 행사 다양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제75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선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덕만)은 새이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와 함께 ‘6.25 참전 용사 보은행사’를 오는 13일 알링턴에 소재한 ‘Renaissance Arlington Capital View Hotel’에서 개최한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리는 행사

에는 워싱턴 지역 참전 용사와 가족, 실종자와 전사자 가족, 한인 참전 용사, 정관계 인사, 그리고 한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만 버지니아 한인회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남부에 있는 타이드워터한

인회(회장 리아리)는 맥아더 기념관과 공동으로 한국전쟁 75주년과 대한민국 독립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28일 오후 2시 노푼에 위치한 맥아더 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워싱턴 통합노인연합회(회장 우태창)는 23일 정오 H마트 버크점점에서 6.25참전 유공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갖는다.

김성환 기자

결국 트럼프에 꼬리 내린 머스크... “내가 너무 지나쳤다”

감세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반영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뒷수습에 나섰다.

머스크는 11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올렸던 게시물 중 일부를 후회하고 있다”며 “너무 지나쳤다”고 썼다.

그는 앞서 지난 9일에는 LA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소셜 게시물을 캡처해 엑스에 공유했다. 개인 뉴스첩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린 배스

LA 시장이 이번 시위 상황과 관련해 LA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머스크는 팔로우를 취소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계정도 슬그머니 다시 팔로우했고, 트럼프의 탄핵을 요구했던 게시물이나 제프리 엡스타인 성 추문 사건에 트럼프가 연루됐다고 주장한 글도 삭제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최소 1억3200만 달러를 쓰며 당선 일등 공신이 된 머스크는 이후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군림하다 최근 DOGE에서 물러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반영한 감세 법안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일 각을 세웠다.

이후 머스크가 화해할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상태에서 머스크가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두 사람의 공방전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정혜정 기자

중앙일보 구독 및 광고 문의: 703-281-9660

워싱턴 날씨 (°F)

13일(금)	88-70	☀️	16일(월)	74-63	☁️
14일(토)	81-66	☀️	17일(화)	83-69	☀️
15일(일)	74-63	☀️	18일(수)	86-71	☀️

6월 12일(목) 93-6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	--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주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보까지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기업 컨설팅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고객님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집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 가정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은 그저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울고, 서로를 보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집을 소개한다'는 표현보다는 '집을 찾아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몇 분인지, 아이들이 있는지, 출퇴근 거리는 어떤지, 어떤 방향의 햇살을 좋아하는지, 조용한 동네를 원하는지 혹은 도심의 활기를 선호하는지, 그 모든 이야기는 고객님의 삶을 이해하고 집이라는 공간에 담아내기 위한 귀중한 단서입니다. 경험을 통해 쌓아온 부동산 지식과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저는 단순히 보이는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그 집이 고객님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이 가진 구조적 안전성, 자연 채광, 습기나 소음, 동네 분위기와 이웃의 특성까지도 하나하나 검토하며, 제가 가족에게 권할 수 있는 집 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불안함을 느끼시는 고객님들께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함께 읽어드리고, 용자나 보험, 세금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하며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는 집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객님의 삶을 함께 설계하고, 고객님의 미래를 응원하는 조력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다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진심을 담아 고객님의 삶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집 안에서 시작될 새로운 하루가 고객님의 미소로 가득하길, 그 마음으로 오늘도 또 하루의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컨설팅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책 구매후 인테리어 디자인/공사 컨설팅 해드립니다
주책 빌더 소개해 드립니다

주책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승경호
www.dwellwashington.com

성균관대 북미주 연합동문회 개최

워싱턴 동문회 주최 3일간 열려

워싱턴지역에서 성균관대학교 제 20차 북미주 연합동문회(회장 최봉회)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워싱턴D.C.동문회(회장 김인숙) 주관으로 6일(금)부터 8일까지 사흘간 웨스틴 워싱턴 델레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우의를 나누고 친선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최봉회 연합동문회장은 “김대영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워싱턴지역 동문

들이 큰 행사를 위해 보여준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김인숙 워싱턴지역 동문회장 역시 “준비 뿐만 아니라 지역 동문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황리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며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동문들은 워싱턴D.C.는 물론 캐나다 토론토,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애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등 미국 전역에서 참석했다.

또한 한국 총동창회에서도 김성집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고문, 총괄 부회장 등 다수의 총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유지범 총장, 박재완 재단 이사장 및 다수의 이사와 교수들이 자리를 함께 하며 미주 동문을 격려했다.

행사는 첫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날 정기총회와 성균인의 밤 공연 행사, 워싱턴DC 관광과 총장배 골프대회 등으로 이어졌다.

정기총회는 2년에 한번씩 미주 각 지역에서 순회 개최된다. 워싱턴DC에서는 지난 2017년에 이어 두번째 행사였다.

김옥채 기자



AI사기로 학자금 대출 피해 급증

챗봇 '유령 학생' 활용방법 전국수백여칼리지 표적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자금 대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범죄 조직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여 재정 지원 수표를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챗봇인 “유령 학생”을 활용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교수들이 수업에 진짜 학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학생들은 챗봇이 수강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명의로 부정하고 억울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신원 도용 피해자들은 대학이나 연방 학자

금 지원 사무소, 대출 기관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사기가 성행하자 연방 교육부는 “신원 도용을 통한 사기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며, 방지책 일환으로 학생들이 정부 발급 신증명을 제시하도록 하는 임시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범죄자들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연방, 주, 지방 학자금 지원금 1110만 달러 이상을 사기 쳤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AI를 이용한 학자금 대출 사기행각이 한층 진화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성한 기자

상호관세 효력 7월말까지 지속

DC연방항소법원 본안 심리까지 효력 인정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효력 인정 시기를 최소 7월말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상호관세 부과 금지 소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1차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가처분 결정을 인정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1차 본안심리는 7월31일 지정돼 있으나, 연기된다면 그 일정에 맞춰 효력이 연장된다.

연방항소법원은 원래 3인 합의 재판

부를 구성하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중요성이 인정돼 11인 전원 합의 재판부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IEEPA를 근거로 무역을 규제할 권한은 헌법상 연방의회에만 있기에 대통령이 행사한 권한은 위헌”이라며 상호관세 정책 철회시켰다.

하지만 연방법무부가 즉각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1심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10일 결정으로 최소 2개월 연장된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원고와 피고측 모두 항소법원 최종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피력한 상태라,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옥채 기자

페이팩스 교통단속카메라 대거 새로 설치

스쿨존 등 전체 19곳 위반시 벌금 100달러

버지니아주 페이팩스 카운티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메라를 통한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강화에 나서기 위해 신규로 감시카메라를 대거 설치할 예정이다.

페이팩스 교통 당국에 따르면 사고

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공사구역, 그리고 스쿨존 등 전체 19곳에 새롭게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다.

오는 15일 설치될 페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 포프스 헤드 교차로 공사 구역은 첫 30일은 위반 운전자에게 경고만 하고, 7월15일부터는 1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새로 설치될 스쿨존으로는 카디널 포레스트 초등학교, 리버사이

드 초등학교, 벨베데레 초등학교는 내달 2일부터 시작돼 8월18일부터는 위반 운전자에게 티켓이 발부된다.

또한 찬탈리 고등학교, 에디슨 고등학교, 마샬 고등학교, 사우스레이크 고등학교, 맥클린 고등학교, 로빈슨 중학교, 스톤 중학교 등은 8월18일부터 시작돼 9월17일부터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김성한 기자

소수계 주민 비율 높은 곳일수록 평균 기온 높아

버지니아에서 소수계 거주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여름철 기온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토드 룩강빌 리치몬드대학 교수가 이

끄는 12개 대학 공동 연구팀이 2021년 7월부터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곳곳의 기온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수계 인종 거주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기온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버지니아 산림국은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산림녹화가 잘된 곳

일 확률이 높으며, 부유층 거주지역일수록 백인 거주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밝혔다.

김옥채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츠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인

DUO NY 212-915-7115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표적·무작위 단속 병행, 식당·창고도 대상

불체자 단속 어떻게 하나 당국 기준·이유 설명 안해 대부분의 업체 불만·초조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 단속이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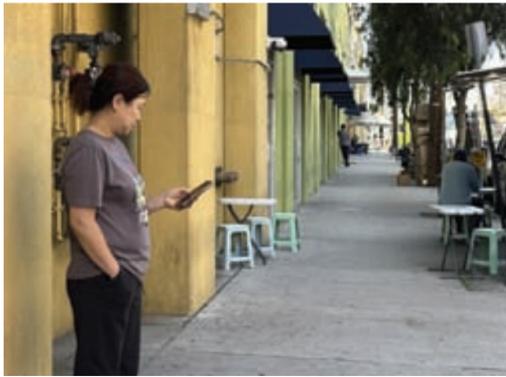
최근 단속 양상이 특정 업소를 대상으로 한 표적 단속과 무작위 단속이 병행되고 있어서 지역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LA타임스는 단속 요원들이 위티어의 법원, 도서관, 헌팅턴파크와 샌타애나의 홈디포, 파운튼벨리의 사업체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무작위 단속

무작위 단속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홈디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무표식차를 탄 요원들이 포모나의 홈디포를 덮쳐 일용직 근로자 수십 명을 체포했다. DHS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1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지만, 이민 옹호 단체들은 최대 25명



연방 당국이 무작위와 표적 단속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체자 단속이 실시된 자바시장이 한산하다. 10일 오후 샌피드로 패션 마트(왼쪽)와 센터앨리엔 오가는 행인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방 당국이 무작위와 표적 단속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체자 단속이 실시된 자바시장이 한산하다. 10일 오후 샌피드로 패션 마트(왼쪽)와 센터앨리엔 오가는 행인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LA 웨스트레이크 지역 홈디포도 표적이 됐다. 이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홈디포 중심의 단속에 대해 연방 당국은 대상 선정 기준이나 작전 기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신속대응네트워크(CRRN)의 케이시 콘웨이에 따르면, 도넛 가게, 식당, 집, 창고 등 다양한 업소

에서도 단속이 확인됐다. 9일 헌팅턴파크 홈디포 밖에서도 사람들이 연행됐다. 또 9일에는 웨스트LA컬버시티의 한 세차장에서도 단속이 벌어졌다. 고객으로 세차장을 찾은 아르투로바스케스(48)가 가족과 함께 있던 중 체포됐다. 그의 아들 브라이언(15)은 “아빠에게 어떤 문서도 서명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눈물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웨스트체스터의 또 다른 세차

장에서도 10년 근무한 이민자가 연행됐다. 그의 아내 노에미 시아우 씨는 “10살 아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5살 아이는 아직도 아빠가 일하러 간 줄 안다”고 말했다.

백악관 선임 보좌관 스티븐 밀러의 지시가 무작위 단속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밀러는 체포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 대상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속을 지시했으며, 홈디포와 세븐일레븐을 주요 표적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표적 단속

지난 5월 말에는 샌디에이고의 레스토랑 ‘부오나포르케타’와 ‘에노테카부오나포르케타’에서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당국은 이들 업소가 위조 서류를 활용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4명이 체포됐으며, 수년 전부터의 제보와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에는 LA 다운타운의 한인 의류업체 ‘엘비엔스 어패럴’이 급습을 받았다. 해당 업체 측은 “합법적 근로자만 채용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무작위 단속과 표적 수사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남가주 내 불안감이 퍼지고 있으며,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한길 기자**

영주권 직계가족 문호 8개월 빨라져

2025년 7월 중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문호도 소폭 개선

7월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진전됐다. 취업이민 문호도 소폭 개선됐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대부분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앞당겨졌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6월 8일에서 2016년 7월 15일로 한 달 넘게 진전됐다. 가족이민 중에서도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8개월이나 빨라졌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0월 15일로,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1년 6월 22일에서 2011년 8월 1

2025년 7월 중 영주권 문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가족이민 1	2016년 7월 15일 (2016년 6월 8일)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2A	2022년 9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2월 1일)
2B	2016년 10월 15일 (2016년 9월 22일)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3	2011년 8월 1일 (2011년 6월 22일)	2012년 7월 22일 (2012년 7월 22일)
4	2008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2008년 9월 8일 (2008년 6월 1일)
취업이민 1	오픈 (오픈)	오픈 (오픈)
2	2023년 10월 15일 (2023년 10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3	2023년 4월 1일 (2023년 2월 8일)	2023년 5월 1일 (2023년 3월 1일)
4	2021년 7월 8일 (2021년 6월 22일)	2021년 7월 22일 (2021년 7월 22일)
4	처리불가 (처리불가)	2021년 2월 1일 (2021년 2월 1일)
5	오픈 (오픈)	오픈 (오픈)

괄호 안은 2025년 6월 우선일자, 자료: 국무부

일로 나아갔다.

다만 가족이민 중에서도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과 같았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 문호는 대부분 동결이었던 가운데, 2A순위와 4순위는 진전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문호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8일에서 2023년 4월 1일로 진전됐다. 3순위 비

숙련직의 경우에도 2021년 6월 22일에서 2021년 7월 8일로 당겨졌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에서 2023년 5월 1일로 2개월 진전됐다.

나머지 취업이민 문호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김은별 기자**

트럼프 vs 뉴섬, LA 시위 두고 정면 충돌

정치 승부처로 인식, 강경 대립 “군 배치 불법”... “해병대도 투입”

캘리포니아주 최대 도시 LA에서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사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차기 잠룡’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LA에 군병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자 뉴섬 주지사가 LA 내 군병력 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는 이제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라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법원에 이러한 불법 행위를 즉시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 소송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을 상대로 LA에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배치를 주지사의

동의 없이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방위군까지 동원된 강경 진압 기조 속에 시위가 격화한 상황에 대해 “이는 정확히 도널드 트럼프가 원했던 것”이라며 “그는 사태를 격화하고, 불법적으로 주 방위군을 연방 차원에서 동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주 방위군에 대한 통제권한이 국가적 반란과 같은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사인 자신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 방위군 동원을 명령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 방위군 2000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뉴섬 주지사가 이에 반발해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캘리포니아에서의 폭력적이고, 선동된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LA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고 썼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LA 곳곳 밤새 대규모 약탈... 뉴욕 등 23곳서도

현장 르포

일부 시위대 '보석거리' 상점들 털어 애플숍은 '당분간 영업중단' 안내문

상점주인들은 사설 경비업체 고용 LA 비상사태 선포, 도심 일부 통금령

10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대표적 명소로 꼽히는 6번가 '보석거리' 곳곳에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다. 상점 문은 뜯겨져 나가 나무 판자로 막아놨고, 진열대는 텅 비었다. 난장판이 된 거리의 랜드마크 애플숍엔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걸렸다.

LA 도심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反) 이민 정책 시위 진압에 경찰력이 집중된 것을 틈타 전날 밤 벌어진 대규모 약탈의 현장이다.

급하게 고용한 사설 경비원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던 보석점주 세길 모선은 "약탈자들이 몰려와 상점을 부수고 물건을 강그리 가져갔다"며 "밤새 재산이 약탈당하는 걸 CCTV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못 하는 미친 상황에 화가 난다"고 했다. 경찰은 뭘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시위 진압 때문에 끔찍한 약탈이 자행되는데도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며 "LA에선 비슷한 약탈이 반복되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 사실상 경



시카고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 가운데 10일 시카고에서 시위대가 파카소 조형물 위에 올라가 멕시코 국기 등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은 애틀랜타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죽을 터뜨린 모습. (AFP·로이터·연합뉴스)

호 요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석거리의 상점 대부분은 이날 문을 닫았고, 점주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설 경호원이 지키는 가운데 쇼윈도에 판자를 덧대고 있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찰리 시즌은 "밤새 오토바이 소음과 유리 깨지는 소리로 한숨도 못 잤다"며 "정신 나간 약탈자들의 행동을 불합리한 이민 정책에 대응하는 시위대가 한 짓으로 보게 될까 봐 오히려 걱정"이라고 했다. 서덜 멜라니도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흑인과 백인·라티노·아시안 등 모두가 함께 문쳐야 하는데,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닷새째를 맞은 대규모 시위 와중에 LA에서 약탈 등 범죄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집중'에 비유하며 공격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외국 국기를 든 폭도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다"며 "LA는 통제되지 않은 이민 때문에 썩어버린 오물 구덩이가 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내가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LA는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며 "그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미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에서 군사훈련을 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애틀랜타

은 골킥팅이·선동꾼·반란자들에게 돈을 지불했고, 의도적으로 범죄자들이 도시를 점령하는 걸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안 불안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가 거세지자 이날 시위대는 그간 대치를 벌여 온 연방 건물 앞 집회 대신 가두 행진을 거쳐 인근 공원에 모여 평화 집회를 열었다.

캐런 베스 LA 시장도 이날 "전날 밤 23개 사업장이 약탈당했다"며 "반달리즘(공공시설 파괴)과 약탈을 막기 위해 통행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되는 지역은 공공기관이 위치한 시내 1제곱마일(약 2.6㎢)이다.

통행금지령 발령 직후 개인 뉴스 주지사는 TV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장악하고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소집해 불타기 쉬운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가 첫 번째 일지 몰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은 다른 주들로 확대될 것이고, 그 이후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LA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시카고·라스베이거스·오스틴·애틀랜타·뉴욕 등 최소 24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고, 뉴욕에서도 맨해튼 트럼프 타워 주변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다 최소 9명이 체포됐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질서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X(옛 트위터)에 "평화적인 시위는 합법이지만 사람이나 재산을 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체포될 수 있다"며 "텍사스 주방위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법행위 관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 육군 창립 25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시위가 보다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100여 개 시민단체가 미 전역에서 개최하는 '노 킹스(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강태화 기자

LA 이어 텍사스에도 군 투입...이민단속 반대 시위 미국 전역 확산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텍사스주도 질서 유지를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AFP 통신은 10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SNS 플랫폼 엑스(X)를 통해 "텍사스 주방위군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 전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애벗 주지사는 "평화로운 시위는 합법이지만, 사람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체포될 수 있다"며 "주방위군은 범법행위 관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인 애벗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에 대응해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영향을 받아 비슷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개인 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행된 것으로,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직접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의 일이다. 특히 법적으로는 반란 수준의 위협 상황이 아닌 경우 대

통령의 일방적 개입은 무리라는 비판도 나왔다.

LA에서는 지난 6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압적인 단속과 체포를 실시한 데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이후 이 시위는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샌너제이뿐 아니라 텍사스의 달러스, 오스틴, 조지아주 애틀랜타, 테

네시주 멤피스 등 미국 10여 개 도시로 확산됐다.

특히 텍사스주 오스틴의 주의회 청사 앞에서는 수백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수천 명이 모이는 등 시위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애벗 주지사는 이미 오스틴 시위에서 시위대 1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재홍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L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량금(미락소) 몰
워싱턴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소 몰 대량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트럼프 “중국은 희토류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 허용”

“나와 시진핑 최종 승인만 남아” “중국에 55% 관세 부과 중” 발언도 로이터 “새로운 관세율 제시 않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등을 공급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 협상 담당자들도 이틀간의 2차 무역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과의 협상은 완료됐다”며 “다만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나와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미·중 정상 간 승인 전에) 중국이 미리 공급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합의된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합의에 미국의 대학·대학원에서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내용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5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10%(의 관세율) 부과하고 있다”며 “(양국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달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무역 협상을 통해 상대국에 서로 부과했던 관세를 90일 동안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 유에 조치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30%(기분 상호 관세 10%+펜타닐 관세 2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각각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중국 관세를 55%로 적시한 것을 두고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합의로 미국이 중국

산 수입품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는 기존 30% 관세에(트럼프 1기 당시 부과했던) 관세 25%를(더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는 새로운 관세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던 기존 대중국 관세 25%까지 합한 관세율이라는 해석이다. 양국의 고위급 협상 대표들도 합의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내놨다. 전날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무역 협상 후 취재진에게 “제네바 1차 합의와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틀)에 중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 대표인 리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도 같은 내용을 취재진에게 확인했다.

러트니 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는 1차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의 핵심 광물, 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무엇을 내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신에선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완화가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협상팀에(일부 제품의 수출 제한을 완화해도 좋다는) 협상 제안을 줬다”며 제트기 엔진 및 부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희토류 수출’을 무기로 한 중국이 사실상 무역 협상에서 승기를 거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희토류는 몇 달 안에 고갈될 수 있기에 미국 자동차와 무기 산업에 제약”이라면서 “(세계 희토류의 70%를 공급하는) 중국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전했다. 미 리스크관리 컨설팅 업체인 가르넷 글로벌의 리자 토빈 상무는 WP에 “현재 중국은 상당한 희토류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은 언제든지 미국의 무기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던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1차 무역 협상 당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 시 주석과의 협상이 어렵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양국 협상은 교착되다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서 2차 협상이 성사됐다. **서유진 기자**

북아일랜드서 수백명이 주택·차에 방화

이틀째 반이민 폭동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반(反)이민 폭동이 이틀째 계속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벨파스트에서 북쪽으로 45km 떨어진 도시 벨리미니아에서는 9일에 이어 10일 밤에도 후드와 복면을 쓴 수백명이 거리로 몰려 나와 경찰과 주택, 차 등을 향해 화염병과 벽돌을 던졌다.

이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대응했다. 이번 폭동으로 9일에는 경찰관 15명이, 10일에는 17명이 다쳤고 폭동 용의자 6명이 체포됐다. 주택과 건물 여러 채도 불이 붙고 파손됐다.



10일 밤 북아일랜드 벨리미니아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 [AFP-연합뉴스]

폭격자들은 폭력 시위자들이 외국인을 겨냥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이에 일부 주민은 자택 창문에 ‘영국인 가정’이라고 쓰인 종이나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을 붙여두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14세 남자 청소년 2명이 10대 소녀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어졌다.

피고인들의 이름과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 9일 이들이 법정에 영상 출석하면서 루마니아어 통역을 썼다. 이후 9일 시작한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한 평화 시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폭동으로 번졌다.

현지 경찰은 “이번 폭력 사태는 분명히 인종적인 동기가 있고 우리 소수 민족 공동체와 경찰을 겨냥한 것”이라며 “인종주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영 기자

“여성은 해변·수영장서 얼굴·손발만 보여야”

지난해 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하고 들어선 시리아 임시정부가 모든 공공 해변에서 여성들의 신체 노출을 금지했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시리아 마젠 알 살하니 관광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북장지침에서 “관광객이든 지역 주민이든 공공 해변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들은 대중의 정서와 사회 각 계층의 감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해변과 수영장에서는 보다 겸손한 수영복인 부르키니(Burkini) 또는 신체를 더 많이 가리는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며 “해변과 다른 장소를 이동할 때는 수영복 위에 비치 커버업이나 느슨한 가운(여성의 경우)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부르키니는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복장 부르카(Burka)와 비키니(Bikini)를 합친 신조어로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을 뜻한다. 얼굴과 손, 발을 제외한 신체를 모두 가린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는 수영 구역 내에서만 상의 탈의가 허용된다. 수영장, 호텔 로비와 음식 서비스 구역 밖에서는 상의를 벗으면 안된다. 관광부는 “해변과 수영장 이외의 공공 장소에서는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느슨한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투명하거나 너무 짝 끼는 옷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내 기자



독일 베를린의 노천탕에서 부르키니를 입고 더위를 식히고 있는 젊은 여성. [EPA-연합뉴스]

다만 4등급으로 분류된 리조트와 호텔, 그리고 사설 해변과 수영장에서는 일반적인 서양 수영복이 허용된다.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불확실하지만, 관광부는 “인명 구조원과 해변 감독관이 북장 지침을 준수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CNN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오랜 내전 끝에 현재 시리아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타트 흐리르알샴(HTS)의 영향력이 반영됐다. 과거 HTS는 미국과 영국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

알 살하니 관광부 장관은 이 지침에 대해 “시리아의 문화·사회·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북장 지침 지침에 서명한 시리아 아메드 알사라 임시 대통령은 HTS를 이끌고 수십 년 동안 집권해 온 아사드 정권을 지난해 12월 무너뜨렸다. 그는 ‘13년 내전’을 종식시킨 지 7주 만인 지난 1월 29일 시리아 과도정부의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됐다. **조문규 기자**

마크롱, 청소년 흥기 살인 사건에 “SNS 사용 금지할 것”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학생 흥기살인 사건과 관련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영향을 비판하며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프랑스 2 TV에 출연해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흥기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날 프랑스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흥기 살해 사건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이날 프랑스 동부 노장의 한 중학교 앞에서는 이 학교 학생(14)이 가방 검사 도중 교육 보조원을 흥기로 찔러 살해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원인을 SNS에서 찾았다. 그는 SNS가 “어린이·청소년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프랑스가 먼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의 SNS 금지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접근 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성인물 사이트는 접속시 연령 확인 과정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앞으로는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흥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TF1 방송에서 “현재는 단검만 금지인데 이제는 흥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에도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흥기를 휘둘러 여학생 1명을 살해하는 등 최근 몇 달간 청소년의 흥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정세내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샐리스프링 북에 워튼 센터(아름다운-마리)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쉐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 쉐넬리(아름다운-마리)과 쉐넬리 센터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t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n@prospertlawpllc.com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금 11AM ~ 2PM)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밀반찬,...



Father's Day 이벤트

6/13(금) ~ 6/22(일)

행사 기간 동안 \$140 이상 주문하시는 고객님께 육회를 공짜로 드립니다!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월~목, 일 | 오전 11시 ~ 오후 10시
금~토 | 오전 11시 ~ 오후 11시

*주말 발렛파킹 서비스 해드립니다.

2900 뚫은 날, 이 대통령 증시부양 밝혔다

(코스피)

거래소 찾아 “배당축진세제 추진” 코스피 3년5개월 만에 2900 돌파 “불법 공매도 반복 댄 퇴출”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에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제도다. 부당 이득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पै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날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지수는 3년5개월 만에 2900 선을 돌파했다.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밝힌 대선 공약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윈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행위자의 영

구 시장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인 공매도도 문제가 많다 보니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폐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대변인은 전했다.

신종 수법 대응도 강조했다. 주가조작 등을 조사하고 적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 시간 동안 범죄가 멈추지 않는 문제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위해 기업의 배당성향 향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성향이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4~2023년 평균 배당성향은 한국이 26%인 반면 중국은 31%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에서 분리해주며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제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금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실무 직원들에게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편하게 풀어나갔다. 자신을 “휴먼 개미”라고 했고, 소형 작전주에 첫 주식 투자를 하고 선물·옵션 거래를 하다가 외환위기 때 큰 손실을 본 일화도 소개했다. 한국 주식시장을 “영희와 철수가 없는 태권브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 “물적 분할이라니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가 통통한 줄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깎대기가 됐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문 정부 때와는 다른 ‘동거정부’... 윤 정부 장차관과 머리 맞댔다

이 대통령, 취임 다음날 국무회의 국내의 문제 협력하려 적극 문답 문 정부 댄 47일간 차관회의만

윤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두 시간이면 끝날 거라던 첫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질문을 쏟아내며 3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대신했다. 문답 과정이 없어 국무회의가 대부분 오전 중에 끝났던 윤석열 정부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할 때는 불편한 관계를 의식해 “좀 어색하죠. 웃으면서 합시다”라거나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최선을 다하자”고 다독이기도 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나?”는 이 대통령의 당부로 시작한 10일 두 번째 국무회의는 6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반대했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결결해 긴장이 흐르는 회의였지만 이 대통령은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이 반대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다 말씀하셔도 된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공감을 표하거나 차분히 설

득에 나섰다. 그러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실용적인 국무회의 같다” “일을 하려는 의욕이 강해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협력적 동거 정부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선 “교육지책”(민중당 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물리적으로 국무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 절차에 한 달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수 침체 및 트럼프발(發) 통상 리스크 등에 대응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차

관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 역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임명된 뒤에 인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은 역시 인수위 없는 ‘동거 정부’ 기간을 거친 문재인 정부의 대처와는 180도 다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고 각종 현안과 정책을 흥 실장 중심의 차관회의에서 다루게 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과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걸 꺼렸기 때문에 나온 조치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48일 만에 처음으로 동거 정부의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규태 기자**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同居) 정부’가 될 것이라 관가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운전대를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과 스스럼없이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날인 지난 5일

건진 일가, 윤 불법캠프 운영 정황... 전 검찰총장 사위도 연루

(20대 대선 당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 일가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불법 대선 캠프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씨 일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대선 캠프를 운영하고, 댓글 조작 등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특검 출범 이전까지 최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16개 수사 대상에 건진법사 관련 국정 및 불법 공천·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던 한 화랑을 윤 전 대통령의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씨의 딸이 대선 전 2021년 화랑 인근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선거사무소 업무를 도왔다는 것이다. 전씨 처남 김모(56)씨가 화랑 소유주 A씨(49)와 다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나타났다. A씨는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전씨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도 A씨가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합류하고, 누나인 B씨(54)씨도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된 게 선거 사무실 무료 제공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지난 4월 소환조사했다.

해당 화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TV 토론, 정책보고서 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캠프 인사는 중

앙일보에 “경제계 인사들이 화랑 인근에 마련된 전씨의 딸 사무소에 모여 비밀 선거사무소 업무를 도왔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신고되지 않는 선거사무소는 불법이다. 검찰은 별도로 건진법사 전씨가 양재동에서 비공식 캠프를 꾸려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여론전을 펼쳤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양재동 캠프가 이후 윤 전 대통령 공식 대선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로 정식 직제화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한규·손성배·이아미 기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애난데일 싱글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3, 화장, 카운터,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대주차, 뒷출, 2,312sqft, 0.46acre, SOLD AS IS, 동네서세 보다 심만불이상 썬, 리모델링/투자 가치높음, 395/236/495/95/66, 5023 Dodson Dr., Annandale, VA 22003	\$749,000	10. 센터빌 벙클타운 방 3, 화2.5, 차고1, Himart인근, 29/Braddock/28.66	\$639,000
2. 찬들리 하이 싱글 방 4, 화3.5, 차고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1,050,000	11. 게인스빌 콘도 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425,000
3. 찬들리 하이 싱글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군, 방5, 화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	\$1,150,000	12. 맥클린 콘도 1. 방1, 화1, 762sqft 2.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7, Metro, Tysons Galleria 옆	1.\$300,000/2.\$409,000
4. 센터빌 싱글 새집같은 모델홈,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4.5, 차고2, 솔라 패널, 6,228sqft	\$1,150,000	13. 찬들리 새타운 쉼트 방 3, 화3.5, 차고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3,850
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방 4, 화4, (매인/ 풀백스), 차고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925,000	14.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중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일	
6. 우드브리지 싱글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군/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1/95/234	\$639,000		
7. 사우스라이딩 타운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645,000		
8. 애쉬번 타운 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풀라스 공항	\$670,000		
9. 게인스빌 골프 싱글 게인스빌 레이크 매너스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1,060,000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맞춤 융자와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LOTTE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JUN. 12th - JUN. 19th, 2025

맛과 건강을 한번에!!!

실속가득 파격세일

Incredible Value, Unbelievable Sale!

팔도
비빔국수 박스-10팩
(비빔장 포함)
Paldo Bibim Guksu Noodles
Box - 10 Packs (Includes sauce)

~~\$24.99~~ **\$9.99** **10X110 G**



Will
헬리코박터 프로젝트-윌
(오리지날/저지방)
Probiotics Yogurt
(Original / Low Fat)

2 FOR \$5.99 (4X150 ML)

본 광고는 오직 온라인 상에서만 유효하며, 일부 품목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oodcroft
Richmond, VA 23294

Stafford, VA
20110 Woodcroft
Stafford, VA 22459

Centreville, VA
14000 Woodcroft
Centreville, VA 20107

Chantilly, VA
14000 Woodcroft
Chantilly, VA 20151

Reston, VA
14000 Woodcroft
Reston, VA 20191

Arlington, VA
14000 Woodcroft
Arlington, VA 22204

Herndon, VA
14000 Woodcroft
Herndon, VA 22061

Ellicott City, MD
14000 Woodcroft
Ellicott City, MD 21042

Catonsville, MD
14000 Woodcroft
Catonsville, MD 21049

Rockville, MD
14000 Woodcroft
Rockville, MD 20850

Quantico, VA
14000 Woodcroft
Quantico, VA 22083

검찰해체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 “석달내 통과 목표”

(옛 처럼회 소속)

김용민 등 당정협의 없이 4법 발의 수사·기소분리, 국가수사위도 설치 여당 중진 “아직도 야당처럼 행동” 야당 “이 대통령 수사에 보복 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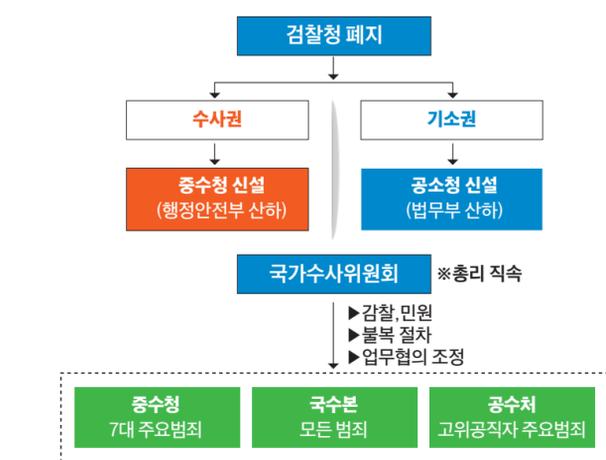
11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폐지 4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완전 분리”라는 6·3 대선 공약의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3개월 이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의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수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

치·운영법 등이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옛 처럼회) 소속이다.

법안은 기존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더해 7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국수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수위는 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수사 업무를 조정·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수사 과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

정에서의 인권 침해나 불기소·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도 처리하는 상급기관 역할도 하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

나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개혁 과제는 국회 입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개인적으로 검찰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여당답게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 의원이 아직도 야당이나 시민 단체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이 “여당의 법안은 각론에 대한 조율이 핵심인데, 무턱대고 법안부터 낸 것”이라며 “임기 초 민생에 집중해야 할 대통령에게 부담만 주는 행태”라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와 검찰총장이 소속되는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검찰 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했다.

김정재 기자

비대위원장 몰래 의총 취소, 3대 특검법엔 침묵… 무기력한 국민의힘

‘후보교체 시도’ 감사착수 놓고 충돌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 예정이던 의원총회를 40여분 전 갑자기 취소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과정을 살피는 첫 회의를 여는 등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0

분쯤 의원들에게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며 의총 취소 공지를 보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16일에 열린다. 애초 이날 의총에서는 김 위원장의 거취, 당 개혁안, 차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의총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쓰며 즉각 반발했다.

이런 와중에 당무감사위원회는 이

날 오전 회의를 열고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안건으로 올렸다. 김 위원장이 8일 당 쇄신 5대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선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 직후 옛 친연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후보 교체 파동 때 비대위원장 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

된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유일준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해 8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임명한 인사인 까닭에 감사 주체를 두고도 계파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집안 싸움에 몰두하는 가운데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내부에선 “화력 제로 정당”이라는 자조도 나온다. 9일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이 불거진 뒤 10일엔 차명 대출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은 침묵하다시피 했다. 11일이 돼야야 대변인단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취지의

논평을 낸 정도다.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해병 사망 사건 의혹’ 관련 3대 특검법을 두고도 오후 늦게까지 “격정과 경고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제목의 600자 원내대변인 논평이 나온 게 전부였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몸담았던 전직 의원은 “오죽하면 특검법에 알게 모르게 연루되거나, 서슬 퍼런 사정 정국에 위촉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러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온다”고 혀를 찼다.

손국희·박태인 기자

예대금리차 록 집은 이 대통령 “해외보다 벌어져 있는 것 아니냐”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서 우려 표명 “대출금리 내리면 대출잔액 늘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개최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시장 흐름과 엇박자가 나고 있는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대금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산금리 인하 공약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 등이 모인 TF 회의에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를 벌려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예대금리차를 록 집어 언급한 데는 대출을 받는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실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는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다. 지난 3월엔 1.4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관련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로 치솟기도 했다. 이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인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여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다”며 “향후 가산금리 조정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대출원가를 반영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기준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가산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구조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리스크 등에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더해 정해지

는데 이 대통령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말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일부 제외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가산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외와 비교하면 예대금리차가 큰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Fed)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미국의 은행 예대금리차는 5.75%포인트

수준이다. 영국도 예대금리차가 2%포인트 수준이다.

은행권에선 대출금리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어려운 딜레마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잔액이 불어나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늘었다. 지난해 10월(6조 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 6000억원이나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금리까지 낮추라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겠습니다.”

Cheltenham Homecare

첼튼햄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800-764-1005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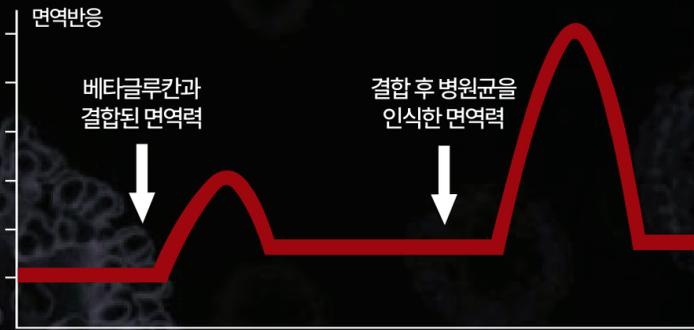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강력한 면역 활성화 물질-

베타글루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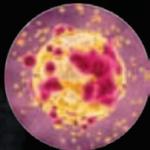
단기간에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 분에게 좋습니다!



암투병



항암 치료 후 재발 관리



만성염증



조강일
내과전문의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키워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우메켄 **NEW** 베타글루칸

- 영지버섯 • 상황버섯 • 차기버섯 • 꽃송이버섯 • 녹각영지버섯 • 동충하초 • 송이버섯 • 마이다케(앞새)버섯 • 아가리쿠스버섯

9가지 항암버섯에서 추출한 우메켄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 함량을 **280mg**으로 올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강력한 면역력을 위해! 우메켄 베타글루칸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암 치료 중인 분 •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 가족력이 있는 분
- 고열이 자주 발생하여 몸이 떨리고 질병 회복 기간이 긴 분 •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 백혈구 수치가 낮아 구내염, 설사, 감기, 독감에 자주 걸리는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대북확성기 꺾다, 이재명식 대북 유화 메시지

대통령실 “남북신뢰 회복 물꼬”
대선 때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
일각 “정부가 사전조치 나선 것”
북한 태도변화 이끌지는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2018년 5월 1일 육군이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는 모습. [중앙포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전방 일대에서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모든 전선에서 가동됐던 확성기 방송이 이날 오후 2시부터 멈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면서다.

접경지역 주민들 소음 피해도 고려

이 대통령의 지시 뒤 군 당국은 서부·중부·동부 전선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대와 이동식(기동형) 확성기 16대가 동을 모두 중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에 대응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뒤 간헐적으로 가동하다 7월 21일부터 전면 방송에 착수했다.

확성기 방송 중지는 지난 9일 관련 단체에 대한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대북 유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선제적 조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는 강 대변인의 표현처럼 정부는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며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밝힌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위해 정부가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라 해석도 그래서 나온다. 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골자로 한다.

여기엔 한동안 북한이 오물 풍선 부양을 멈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마지막 오물 풍선 도발은 지난해 11월 28~29일(32차)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소음을 송출하는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려온 점 역시 이번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

이와 관련, 일부 접경 지역에서 이날

오후부터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비무장지대(DMZ) 내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김동현 전 이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 쪽에서 시끄러운 확성기 방송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오후 들어서 방송 소음이 들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북도발 땀 확성기 다시 틀 수도

다만 선의에 기반한 대북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 시각도 적

지 않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도부 체제 비판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의 ‘나쁜 행동’을 교정할 뜻 안 되는 실효적 대응 카드로 꼽혀왔다. 대북 방송은 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실상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함구할 때도 군 당국은 대북 방송을 통해 이를 북측에 알리기도 했다.

정부는 긴장 완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선제적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자칫 남 측의 조치를 또 다른 도발의 명분으로 삼아온 북한의 논리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을 재개할 경우에도 방송을 계속 중지할 것인지 묻자 “지금 언급한 과정을 거꾸로 복기해 보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애초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대남 방송에 한국 측의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불여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측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도 말했다.

다만 정부도 확성기 방송 재개에 명확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 군 당국은 이날 방송만 멈췄을 뿐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계속하거나 다시 오물 풍선 도발에 나설 경우 확성기를 다시 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전역진·이근평·윤지원 기자



KF-16 전투기, 미국서 훈련 도중 사고

11일 공군 KF-16 전투기가 미국 알래스카 이슬슨 기지에서 이륙 할중 기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전투기는 2인이 탑승하는 복좌 전투기로, 조종사 2명은 모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공군은 사고조사팀과 긴급정비팀 10여 명을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로 급파했다.

[페이스북 캡처]

국정기획위 16일 출범...60일간 새 정부 국정과제 밑그림 그린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기획위 출범·현판식을 다음 주 월요일(16일)에 한다”면서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

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출범을 앞두고 이 위원장은 이날 3명의 부위원장과 위원회 업

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한 7개 분과위원회 분과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던 전례에 따라 김용범 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방기선 실장이 임명됐다. 분과장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 이준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혜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라파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리치몬드 페넬로라 상담원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면 할인 혜택받으세요!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06/17~06/27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한) 10박 11일	\$2990+항공
06/21~07/04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390+항공
06/24~07/04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390+항공
06/25~06/30	독립기념일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6/28~07/05	동유럽 7박 8일	\$2990+항공
06/30~07/03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7/08~07/18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8/02~08/15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390+항공
08/05~08/15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390+항공
08/08~08/13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8/14~08/20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08/21~08/31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10박 11일	\$2990+항공/오션뷰
08/29~09/01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08~09/15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2190(부터~/인사이드) \$2590(부터~/가려진 발코니)
09/09~09/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16~09/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9/30~10/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30~10/06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5~10/13	크로아티아 발칸 8박 9일	\$35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v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3490+항공 부터~/오션뷰
10/21~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2290+항공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 11일	\$3590+항공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1/03~11/14	일본 크루즈 11박 12일	\$2490+항공 부터~/인사이드
11/11~11/24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바산) 13박 14일	\$3980+항공
11/14~11/24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26~11/30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490+항공
1/27~2/2/26	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0박 11일	\$7800+항공
2/19~3/1/26	아프리카 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고품격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국일주

10박11일 | \$2990+항공

여행지: 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속초/제주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고국여행과 일본여행을 한번에!!

3차 09/16~09/26 + 오사카 3박 4일 9/27~9/30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4차 10/14~10/24 + 동경 3박 4일 10/25~10/28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5차 10/21~10/31 + 일본크루즈 11박 12일 11/3~11/14 인사이드 \$2990+항공부터~/오션뷰/발코니/요코문의	6차 10/14~10/24 + 동경&오사카 5박 6일 11/8~11/13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일본 연합투어
동경 3박 4일 | \$1149+항공
오사카 3박 4일 | \$1149+항공
동경&오사카 5박 6일 | \$1899+항공
 * 2인 이상 출발보장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일반부와 \$170차이	소노캄 거제 일반부와 \$170차이	그랜드 조선 부산 일반부와 \$180차이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일반부와 \$180차이	롯데호텔 제주 일반부와 \$250차이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에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내륙 6박 7일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동해안 4박 5일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제주+동해 6박 7일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서남권 3박 4일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제주도 2박 3일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전국일주 9박 10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 (미국국적) 남 \$720/여 \$770

현대아산병원/경희대병원/가천대길병원

천심/몽뜨랑블랑 몬트리올/퀘벡 3박 4일 7/3~7/6 \$899

레치위스/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 3일 7/4~7/6 \$699

뉴욕 불꽃놀이 독립 기념일 특선 1박 2일 7/4~7/5 \$425

성규 노아 +아메리마켓 당일 \$199
7/22, 9/9, 9/30, 10/16, 10/29, 11/13, 12/4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라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라이프 스페셜 특식(음선)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
워싱턴시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서부투어 미서부 일주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 5박 6일 \$130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보다 비호감... “한·미 동맹 강화” 요구 커졌다

(2021년 23% → 2025년 37%)

“트럼프 비호감” 76%, 시진핑은 72%
트럼프식 통상 압박, 반발심리 키워
29% “미국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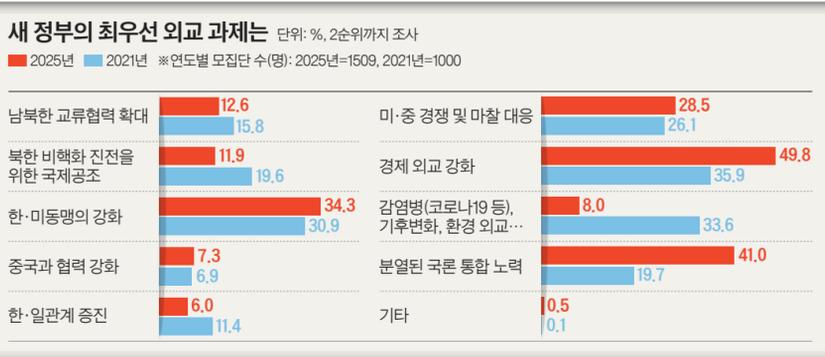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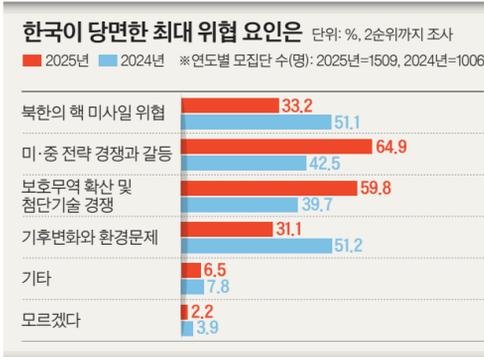
동맹을 경시하고 관세를 무기로 삼는 ‘트럼프 효과’가 한·미 동맹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표출됐다.

11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조사 결과 새 정부가 대미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로 가장 많은 36.6%가 ‘한·미 동맹 강화’를 꼽았다.

앞서 20대 대선 직전인 2021년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동맹 강화가 1위였지만, 다른 이슈들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당시엔 동맹 강화 23%, 경제 및 첨단기술 협력 19.1%, 수평적 대미 관계 구축 18.2%,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16.5%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응답이 13.6%포인트 상승했다. 2위인 경제 및 첨단기술 협력(23.9%)과의 차가 12.7%포인트나 됐다.

한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삼스럽게 커진 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비호감 정서가 커진 현상과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75.5%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71.7%)보다 높았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도 오차범위 내에서 근접했다(트럼프 19.6%, 시진핑 18.2%).

동시에 현재의 한·미 관계를 “나쁘다”고 보는 인식은 지난해 조사에서 14.9%였는데, 올해 33.9%로 19%포인트 급증했다. “미국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응답도 18.2%에서 28.6%로

10.4%포인트 늘었다.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반발 요인으로는 트럼프식 통상 압박이 꼽힌다.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의 수출에 대해 고율의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압도적인 85.6%가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불만은 국민이 한·미 경제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미 경제가 ‘상호경쟁적’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25.4%에서 올해 37.6%로 늘었다. 반면에 ‘상호보완적’이라는 응답은 지

난해 63.7%에서 올해 58.7%로 줄었다. 관세 압박에 대한 불만과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이 누적되는 건 다양한 측면의 불안감 상승으로 이어졌다.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인 가’라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은 지난해 25.4%에서 올해 35.8%로 상승했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리자 중국의 부상을 더 경계하게 된 셈이다.

미국이 불안하니 스스로의 안보 역할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은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의 지속적 증가에 힘을 더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지난해 71.4%에서 올해 75.1%로 증가했다.

핵무장은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 성격이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51.1%에서 올해 33.2%로 감소했다.

따라서 올해 핵무장 지지 비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EAI는 분석했다.

유지혜·정영교·박현주 기자

안미 경미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미국·중국과 함께”

본지·EAI 기획 (상)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국방 협력,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모두 하겠다는 유혹”(지난달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상그릴라 안보대화)에 대한 미국의 공개 경고 속에 취임했다. 이는 한국이 오랜 기간 택해온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다. 동시에 중국은 “자유무역을 공동 수호하자”(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과 통화)며 미국의 ‘안미경미’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런 미·중 사이 딜레마 속에서 여론이 바라는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방향은 ‘안미경중’도, ‘안미경미’도 아닌 ‘안미경미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미·중 모두와 협력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 조사(6월 4~5일, 전국 성인 남녀 1509명 웹조

사,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차 ±2.5%포인트, 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 요인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4.9%가 “미·중 간 전략 경쟁과 갈등”이라고 답했다(복수응답, 2순위까지 합계).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59.8%).

이번 조사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를 묻는 질문에 “경제외교 강화”가 49.8%로 가장 많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질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미·중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불만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EAI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12.7%에서 올해 17.1%로 늘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79.9%가 “미국이 무역·관세 등에서 다른 나라에 강압적 태도를 보이

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해당 응답은 지난해엔 34.4%에 불과했다.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응답도 지난해 8.7%에서 올해 15.4%로 크게 늘었다. 영토 편입 등과 관련한 일방적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안보는 여전히 한·미 동맹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해지는 추세다. “한·미 동맹이 북한의 위협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77.8%에서 올해 86.3%로 늘었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도 지난해 66.5%에서 75.3%로 늘었다.

여론도 한·미 동맹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확장돼야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핵 대응을 넘어 대중 견제를 지향하는 데 동의하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를 묻자 한·미 관계를 꼽은 응답자가 90.7%로 압도적 1위였다. 2위인 한·중 관계(43.2%)의 두 배를 웃돌았다.

유지혜·정영교·박현주 기자

88% “대만해협, 한국 국익에 중요” 군사충돌 땐 절반이 “인도적 지원”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충돌이 한국의 국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갈등이 한국 국익에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87.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 공동 기획조사에서 79.3%가 같은 응답을 한 데 비해 8.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보수층에서 91.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진보층에서도 83.9%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대응 측면에서는 다소 모순된 태도가 드러났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한국은 최대 어떤 대응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9.3%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답했고,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15.8%)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탄약·무기 지원(13%), 전투병 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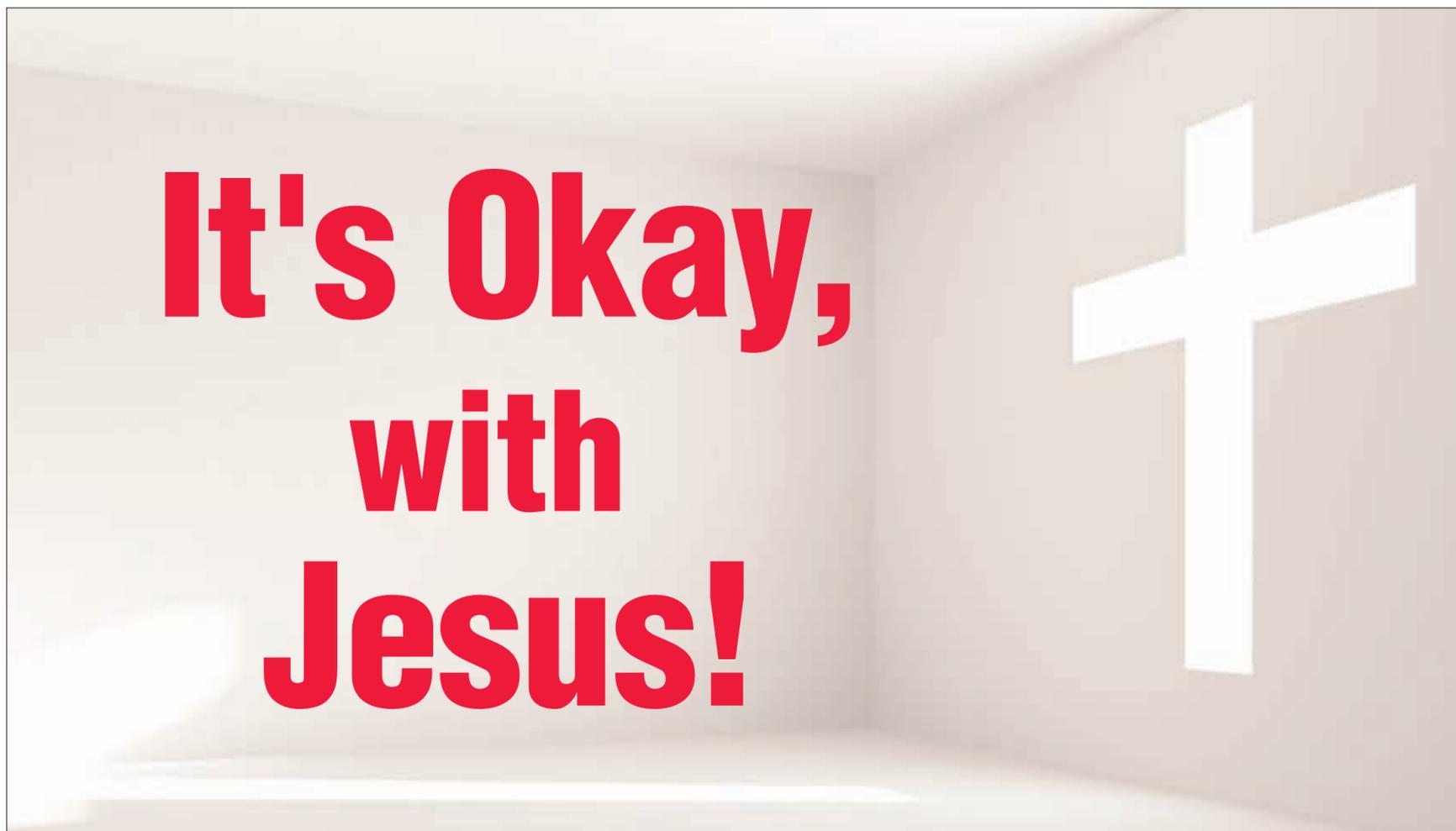
(6.1%), 비전투병 파병(6.8%) 등을 압도하는 수치다.

또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최대 역할을 묻자 “한반도 내에서 대만 군사작전에 대한 후방 지원(군수·정보 등) 임무를 수행한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고,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 및 한국 방위에만 집중한다”(29.5%)가 뒤를 이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 억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까지 확장하려는 데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손열 EAI 원장은 “주한미군 역할 조정의 대전제는 유사시 대북 역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되, 한반도의 안정이 이와 직결되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지혜·정영교·박현주 기자



“공산당 일당지배” “국민 행동 때문” 이유 달라도 “중국 싫다”

(70세 이상)

(20~50대)

“중국 비호감” 66%…1년새 2.5%p ↑
“북비핵화, 중국 영향력 중요” 88%
“중국과 북비핵화 공조 우선” 17%

한국 내에서 반중 정서가 고착화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국민성이나 정치 체제 자체에 대한 반감 등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 구상이 여론의 호응을 얻으려면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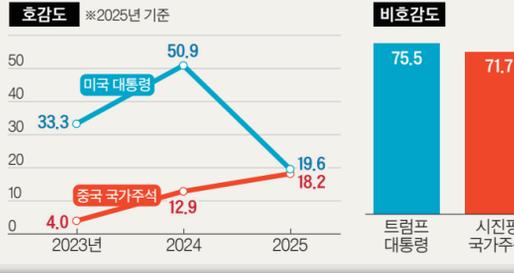
11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66.3%가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 공동 기획조사에서 63.8%가 비호감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2.5%p포인트 상승했다.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은 58.1%는 “중국의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치 체제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9.5%로 2위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비호감 이유 1·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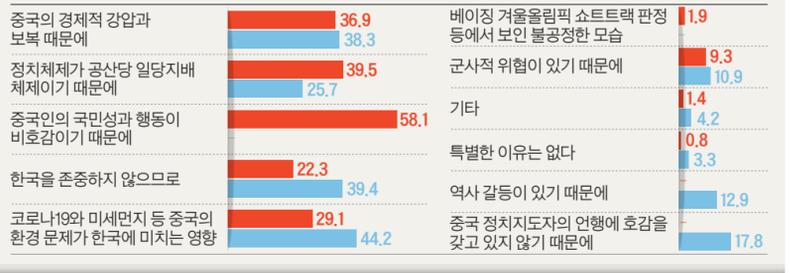
미국 대통령, 중국 국가주식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나

단위: % ※연도별 모집단 수(명): 2025년=1509, 2024년=1006, 2023년=1008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는

단위: %, 2순위까지 조사 ※연도별 모집단 수(명): 2025년=1000, 2024년=642



로 꼽혔던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보복 때문에”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중국의 환경 문제” 등의 이유는 각기 36.9%, 29.1%로 다소 후순위로 밀렸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 정서는 세대와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20대의 80%가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해 가장 반감이 컸고, 70세 이상에선 53.9%로 가장 낮았다. 60대 이하에서는 중국의 국민성을, 70세 이상에서는 체제를 더 문제삼는 경향

도 확인됐다. 20~50대는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라는 점을(각기 59.6%, 64.9%, 66.8%, 60.2%) 비호감의 이유로 꼽았다. 60대는 국민성(48.7%)과 일당 지배 체제(44.6%)를 이유로 든 비율이 비슷했다. 70세 이상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5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한반도 안보에 직결된 북한 비핵화와 관련, 88.3%가 “중국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답하면서도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공조”를 꼽은 응답은 17.2%에 불과했다.

중국의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책임 있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드러난 셈이다.

가장 우려되는 최근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갈등”(26.8%)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미 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중 사이 한국의 딜레마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묻자 중국을 꼽은 응답자도 지난해 63.7%에서 올해 70.5%로 6.8%p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중

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구조물 설치나 군사훈련 등 도발을 반복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응답이 68.4%로 3분의 2를 넘었다는 점이다. 이동을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경제협력이나 북핵 문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국민 정서와 현실 외교 사이에서 ‘비호감의 중국’과 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정영교·박현주 기자

이 대통령 4번째 정상통화는 체코, K원전 수출 힘신는다

‘미·일·중 정상 이어 20분간 통화
“원전 계약, 경험확대 시금석으로”
첨단산업·에너지 등 포괄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에 이어 네 번째 정상 통화 파트너로 택한 국가는 26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계약을 체결한 체코였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4시부터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피알라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 인사에 사의를 표한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



11일 대구시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에서 내빈들이 한국형 원전 APR1000의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

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체코에 진출한 100여 개의 한국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이날 통화의 주요 화두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EDU II가 건설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한 두코바니 원전이었다.

양 정상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인기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공급 계약이 체결된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의 총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4000억 코루나)이다.

체코 측이 테탈린 원전 3·4호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수원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EU에서 여러 사업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이라든가, EU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나갈 것”이라며 “아주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오현석 기자

보이스 피싱에 ‘셀프 감금’ ... 경찰이 40분 설득해 꺼내

지난달 2일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에 한 남성이 들어왔다. 남성은 “여자 친구가 금융감독원,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계속 통화하는데 어제 오후에 모텔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형사과 박영권 경위 등은 모텔로 출동했다. 모텔에 있던 A

씨(20대)는 출동에 당황하며 “(보이스 피싱이) 아니에요”라며 손을 내저었다. 경찰관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계속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테이블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한 경찰관은 “경찰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느냐”고 설득했지만 A씨는 완강했다. 그 사이 경찰은 A씨가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잠시 뒤 대전동부경찰서 피싱전담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전담경찰관이 “보이스피싱이다. 회회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112에 신고해도 범죄집단으로 연결이 된다”고 설득하자 겨우 의심을 풀은 A씨는 휴대전화를 건넸고, 경

찰이 ‘악성앱 탐지 어플’을 설치한 뒤 검색하자 3개의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죄조직의 꼬임에 넘어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죄조직이) 여의도로 오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가면 000 과장이 만나준다고 했다”며 통화 사실을 털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대한 의심은 거

두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은 “(통화를) 몇 시간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세뇌를 당한 것이다”라고 A씨를 다시 설득했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받은 서류를 검찰로 보내 확인한 결과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검찰에서는 영장, 공무원증, 서류 등을 파일로 보내거나 금융거래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회신을 확인한 A씨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진=신진호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Vienna T: 703 853 1966 White Oak T: 412 681 8505 Shady side T: 412 681 8505 South side T: 412 681 8505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1985 Lincoln Way Suite #15 5438 Centre Avenue 2300 Jane St.
Vienna, VA 22182 White Oak, PA 15131 Pittsburgh, PA 15232 Pittsburgh, PA 15203

우리말 바꾸기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해성 선수의 활약도 돋보인다. 한국에서도 다저스 경기 때마다 중계 방송으로 응원하고 있다. 중계진은 “더 이상 실수가 나오면 안 되죠” “더는 실점하면 안 돼요”라며 해설을 이어 나간다. 이때 짚고 넘어가야 할 표기가 있다. “안 되죠”와 “안 돼요”, “안 되요”와 “안 돼요”다. ‘되’와 ‘돼’는 자주 틀리는 맞춤법으로 무엇이 바른지 헷갈린다는 이가 많다.

구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돼’는 ‘되어’가 줄어든 말이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되어’를 넣어 자연스럽게 ‘돼’로 적고, 부자연스러우면 ‘되’로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안 되죠”의 경우 ‘돼’를 ‘되어’로 바꾸니 “안 되어요”가 돼야 적는다. “안 되죠”가 바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죠’는 종결어미 ‘-지’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인 ‘-지요’의 준말이므로 “안 되지요” “안 되죠”로 써야 한다.

“안 돼요”의 경우는 ‘돼’를 ‘되어’로 바꾸되 자연스럽게 “안 되어요”는 말이 되므로 “안 되요”가 아닌 “안 돼요”가 올바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 ‘-어/-어서/-었-’ 등이 붙어 활용될 때는 ‘되-’와 ‘-어’를 축약해 ‘돼/돼서/됐다’처럼 ‘돼’로 표기할 수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시론

지역주의 넘어선 재외동포 표심



장태한
UC리버사이드 교수
김영욱재미동포연구소장

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압도적인 67.62%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지만 대구 출신 해외동포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55.6% 투표했고 김문수 후보는 28.4% 지지에 그쳤다.

경북도 김문수 후보가 66.87%의 지지를 받았지만 경북 출신 해외동포들은 30%만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했고 이재명 후보는 57%의 지지를 받아 큰 차이를 보였다.

왜 해외동포들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까. 여러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첫째, 대부분의 해외동포들은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미주 한인들은 창피하게 생각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고 세계 경제 8대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세계에 자랑할만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는데 1970년대와 1980년대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의아해 했고 강한 거부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조속히 민주주의를 회복하길 바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 듯하다.

둘째,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민 온 미주 한인들은 이제 고령이 되었고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이번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선에 참여한 영주권자와 지상사 직원들 그리고 유학생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30대에서 50대 사이가 많다면 대한민국 유권자 40대와 50대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셋째, 투표권이 있는 대부분의 해외 동포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국인 대한민국이 빨리 민주주의 제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하길 기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외 다른 이유들이 있을 듯한데 앞으로 연구 대상이 될 듯하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권 정부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 제도가 시작된 곳이 바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산 안창호 주도로 시작된 파차파 캠프에서 1911년 11월 23일 대한민국 민회 제3차 북미총회가 개최되었고 21개 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에 의한 무형 정부를 설립하고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법 제도를 완성시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는 바로 미주 한인 사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차세대에 물려주자.

이야침에

다가설수록 필요한 ‘멈춤’



이선경
수필가

우리는 모두 나름의 ‘선’을 두르고 살아간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나와 타인을 구분 짓는 경계선. 그 선은 때로 ‘예의’라는 이름을 하고, 때로는 ‘배려’라는 가면을 쓰며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

가깝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에 사람들은 그 선 앞에서 망설이고, 조심하며, 침묵을 선택한다. 그래서인지 선을 넘기 전의 관계는 참 평화롭다. 적당히 웃고, 적당히 안부를 묻고, 적당히 거리를 둔다.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고,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오히려 오래도록 ‘무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적당함’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 마음이 열리고, 정이 쌓이고, 기대가 자라고, 그 기대 위에 욕심이 얹힌다. “내가 널 잘 아니까”라는 익숙한 핑계와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는 착각이 그 선을 무너

뜨리기 시작한다. 상대의 삶에 의견을 보태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며, 관심이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경계 안으로 스며든다.

선을 넘는다는 건, 어쩌면 인간관계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더 알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 우리는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선 너머에는 ‘또 하나의 우주’처럼 고유한 타인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우주에는 나와는 다른 리듬이 있고, 겉으로

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자신만의 기준, 그리고 성장의 역사가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 수는 없고, 안다고 믿는 순간 가장 소중한 신뢰가 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건 ‘멈춤’이다. 선을 넘기 전, 단 한 번이라도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밟고 있는 건 아닐까?”

관계는 다가서는 만큼 조심스러워야 하고, 가깝고 싶을수록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진짜 가까운 사이란, 서로의 선을 존중하며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다. 언제든 마음속의 문을 열 수 있지만, 상대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지혜를, 삶의 시행착오 속에서, 조금은 늦게라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비로소, 내 선도 지키고, 타인의 선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33) 비공개 대화록

“건평 형, 내 속 많이 썩었다” 노와 동동주 비화록

이번 화에서는 그동안 묻혀 있던 노무현 대통령과의 비공개 대화록을 20여년 만에 전격 공개한다. 집권 1년 차 노 대통령이 자신감과 의욕으로 충만했던 시점에, 주요 일간지 편집국장들과 동동주를 마시며 격의 없이 나는 대화다. 당시엔 공개하지 못했지만, 기자의 메모로 남아 있다. 어투를 그대로 살려 기록함으로써 노 대통령의 말하는 스타일이나 생각을 실감할 수 있도록 메모(당시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장규)에 따라 그대로 전제한다.

·일사장소: 2003년 11월 5일 저녁 6시30분~10시 청와대 만찬
·참석자: 중앙·조선·동아·한국·세계일보 편집국장
·배석자: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대통령 모두 발언

-오늘 자리는 이병완 홍보수석 제안으로 이뤄졌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자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살이라는 게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있고, 모두 때가 있는 법인가 보다. 얼마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당연한 일이 되고 있으니 말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듣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겠다(※이하 노 대통령의 발언을 주제별로 기록하되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괄호로 정리했다).

언론 부분

-언론에 대한 나의 기술적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비보도로 해야 했을 이야기를 그냥 했다든지,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든지...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도 있다. 언론에 대해 대답각을 세워 왔던 것은 사실 나로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겪어 왔던 역울한 경험들, 부당한 비난에 대한 감정 등이 쌓이고, 그러한 짐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함께 그것이 공분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문을 공격하고 맞섬으로써 그 신문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 (농담조로) 사실 나는 언론과 싸우는 것이 재미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쌍하다. 내가 언론과 싸우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그래서 이젠 나도 자제하고 절제하겠다. 언론과도 잘 지내도록 노력하겠으니 도와 달라. 대

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하지만 앞뒤 잘라내면 4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어려움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간다. 잘 봐달라. (언론이 정부를 박해했다는 말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해라는 표현은 주관적 단어 선택으로 이해해 달라.

-나를 가십(gossip)으로 조지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중요한 국가 의제를 중심으로 언론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 까는 기삿거리만 있으면 대문짝만 하게 키우지 않았느냐. 신문이 너무 비판적이다. 좀 밝고 희망 있게 써 달라.

-사실 나로서는 쟁길 것은 거의 쟁겼다. 언론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공무원의 언론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해양부 장관 시절에 겪었지만, 공무원들의 언론에 대한 태도가 너무 저자세였다. 그런 것들이 못마땅해서 가판을 보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이젠 제법 달라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언론에 대한 소송도 모두 홀드(보류)했다(홍보수석에게 회사별로 차질이 없도록 쟁길 것을 지시).

(이날 참석한 편집국장들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대통령 언론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포용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자고 답변했다.)

재신임 문제

-재신임 문제는 적당히 넘어갈 생각 없다. 지금 정치자금으로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발표했던 (재신임 국민투표의) 시기 문제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적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다. 잔머리를 굴릴 생각이 전혀 없다. 지켜봐 달라. 정말 책임지는 자세로 성실히 처리할 생각이다.

-재신임 발표를 하고 나서 나에 대한 지지 여론이 더욱 악화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꺾이기로 오른 것을 보고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복잡 미묘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았다. 노무현이 이xx가 예뻐서 지지율이 높아졌겠나. 노무현이가 아무리 한심해도 불신임에서 엄청난 선거자금을 써가며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느니, 문제가 있어도 재신임해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 또 어떤 엉뚱한 인물이 대통령이 될지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소위 프레지던시(대통령



2003년 11월 5일 노무현 대통령과 5대 일간지 편집국장들이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가운데가 이장규 당시 중앙일보 편집국장이다. [중앙포토]

령다움) 이미지 구축에 나는 실패한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회복이 가능하겠는가. 잘 좀 도와 달라.

정치자금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고삐를 풀 처지가 못 된다. 검찰도 호랑이 등을 뒀다. 내려오려다간 물려 죽는다. 특히 한나라가 특검으로 물고 갈 기세이니, 검찰로선 더욱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일단 검찰이 하는 것을 지켜보자. 이상수(당시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가 내게 모든 것을 다 까고 선언하겠다고 하기에 내가 말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슨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검찰 수사에서 밝히라고 했다.

-어차피 모든 것을 다 깔 순 없다. 이상수가 무슨 죄가 있다. 그가 받았다는 돈은 대부분 소명될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노무현이다.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100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그가 운데는 무슨 닷깡 회사 사장이고, 이름 모를 예식장 주인도 있다. 법으로 걸면 걸린다. 무작정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볼 수 없다. 의리의 문제다.

-분명한 것은 내가 제일 싸게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않느냐.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말 돈 적게 들고 했다. 자원봉사에 크게 의존했다. 경선에 나갈 때도 경선 보증금이 모자라 막판에 포기하려고 했다. 다행히 안희정이 돈을 마련해 와서 경선에 나갈 수 있었다.

집안, 개인 문제

-내 형 노건평은 1970년대의 말단 세무 공무원이었다. 그런 그가 어찌 모범 시민이 될 수 있겠나. 형은 그 시대의 그런 사람이었다. 부동산도 많이 했다. 땅을 사고파는 데는 재주가 뛰어났다. 내 속을 많이 썩였다. 한번은 돈을 좀 해내라고 해서 못 준다고 거절했더니 집안에서 곤욕을 치렀다. 2000만 원을 해줬다. 나중에 땅으로 돌려받았는데, 그게 다 신문에 난 문제의 땅이다. 언론이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와서 두들겨 얹고 해집어대니, 집안에서 내가 뭐가 되겠는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골프를 치는데 자주 주위에서 멀리 건(벌타 없이 다시 치게 하는 것)을 준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100타쯤 친다. 골프 매너는 내가 봐도 벽창호처럼 친다. 완벽한 노터치(No Touch) 플레이를 한다.

미국 문제

-경선 때부터 나의 미국관을 놓고 얼마나 말이 많았나. “일도 없는데 미국을 왜 가냐”는 식의 발언이 상당한 과장을 몰고 왔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당선자 시절에도 반미적인 인물로 언론이 지목해 오지 않았다. 계몽대 가서도 “미국이 북한을 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북한을 쳐야 하느냐”는 식으로 해대나가 군인들도 어리둥절했었지.

-대통령이 되고 보니 미국 워싱턴과 서울을 연결하는 채널이 이렇게도 많은가 하고 깜짝 놀랐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워싱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수십 개의 채널로 보고

됐다.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정말 세더라.

대선 뒷이야기

-정XX(당시 새천년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정말 나쁜 놈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내 캠프를 끌고 당사로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400억원의 후원금을 걷었는데, 막상 대통령 선거 치러려고 하니 14억원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경기도 등 지방 지구당 명의로 후원금을 모아서 썼다. 나보고 돈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몇천만원 갖다줬더니 그걸로 내 스테플러한테 월급 주더라.

-주위에서 민주당 박상규(전 중소기업중앙회장)와 김원길 의원이 돈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인물이니 가까이 하라고 했다. 내 주위에는 돈 만드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박상규가 JP를 총리로 삼으라고 하길래 그걸로 거래를 끊었다. 김원길은 “기업들이 모두 약한 구석이 있으니 돈 걱정 말고 내게 맡기라”고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멀어졌다.

-정몽준이 뜨면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데 김민석(당시 민주당 의원)이 탈당, 정몽준 쪽으로 가면서 내 지지층이 푹푹 뭉치기 시작했다. 정말 김민석 아니었으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분열로 인한 패배를 가장 경계했다. 이회창과의 경쟁에서 나와 정몽준이 분열돼서 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서 정몽준과 승부를 건 것이다. 당시 김민석 덕분에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으나 정몽준을 넘어서진 못했다. 내가 불리한 가운데 계속 정몽준에게 단일화 카드를 내밀었고, 승부를 피하려는 정몽준을 붙들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접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승기를 잡았다.

-나는 장구 굴리는 것을 싫어한다. 체질에 안 맞는다. 대중 생각해서 방향이 맞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내 스타일이다. 대통령도 그렇게 하다 보니 된 것이다.

-정몽준과의 공동정부는 애당초 생각지도 않았다. 그런 약속도 없었다. 승부를 내서 지는 쪽이 깨끗이 물러나기로 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회창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설사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나라를 들어먹을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장규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잇몸치료, 치아교정, 응급환자, 치아성형, 신경치료.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시 설

3대 특검, 오래 끌수록 국가적 손실이다

바야흐로 특검 정국이다. 그제(10일) 국무회의에서의 결된 3대 특검법이 바로 공포·시행돼 이르면 다음 주 특검 3명이 임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SNS에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한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3개 특검을 각각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내란 특검으로 약칭하며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의미도 덧붙였다.

특검 임명 뒤부터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순직해병 특검은 140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사는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과 실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1호 법률이 적폐청산 성격의 특검법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 대통령 언급대로 ‘심판과 회복’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된 적은 없었다. 보복과 응징에 치우쳐 진영 간 분노를 키우고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리만 바꾸는 역사가 반복됐다.

3대 특검법을 의결한 그제 국무회의에 윤석열 정부에서 특검 거부권을 건의했던 국무위원 상당수가 참여한 장면은 특검 정국이 내포한 정치적 긴장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부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구조다. 국민의힘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마평엔 윤석열 정부에서 고초를 겪은 검찰 인사들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수사 범위가 확대돼 당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수사가 검잡을 수 없이 확정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러 혐의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구여권 인사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과건 검사만 120명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오히려 성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수십 개에 달한다. 내란 혐의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고급목걸이 수수 의혹, 선거 개입과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해병 사망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설과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수사팀이 의혹의 환부만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공명심에 사로잡혀 과잉 수사를 하게 되면 기간만 길어지게 된다. 방만한 수사는 국민의 신뢰와 통합엔 방해가 될 게 뻔하다.

연말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내년에 공판까지 진행되면 중차대한 경제와 외교 문제에 매진해야 할 새 정부의 1년이 과거 청산에만 얽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내란 심판, 질서 회복 위한 진상규명의 시간
길어지지 않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해야**

더 세진 상법 개정, 부작용 없을지 기업 의견도 들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증시가 연일 뜨겁다. 어제 코스피는 2022년 1월 이후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기업·탄핵 국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 ‘코스피 5000’과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약속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허니문 랠리’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는 시스템과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주가 조작을 엄단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편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물적 분할이나 인수합병에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사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여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일단 보류하긴 했지만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은 어쨌든 기정사실이 됐다. 문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지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수위가 훨씬 높다는 점이다. 기존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넘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새로 포함됐다.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면서 이들 전원에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주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못하게 하면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펀드의 협공에 흔들릴 위험이 있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 조항을 추가하려면 기업에도 상응하는 방어권을 보장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지배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차등의결권이나 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이 있는 황금주,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싸게 새 주식 매입 권한을 주는 포이즌필 등 적어도 미국·일본 수준의 경영권 보호 수단을 기업에 줘야 한다.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경영권 보호장치와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새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에도 부합한다.

소수 주주가 대주주의 전횡에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대기업 오너의 이사회 독점도 깨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색한 한국 기업의 배당은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기업 투자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그룹 총수 등과의 간담회에서 세계의 우려를 경청하기 바란다. 뭐니 뭐니 해도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법이다.

아직도 20세기에 사는 국민의힘

**김정하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지난해 4월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직후 ‘여당, 수도권 강화 없이 미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인적 구성이 영남권에 편중된 국민의힘이 앞으로 ‘수도권 감수성’을 키우지 않으면 당의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 내내 이야기였다. 물론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총선 참패 석 달 뒤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만, 용산과 당내 친윤의 견제에 막혀 한 전 대표가 보여준 건 별로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가 닥쳤지만 국민의힘이 한 거라곤 용산의 방패 역할뿐이었다.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의힘에 운명의 변곡점이 될 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고 보수의 새 판을 짤 기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꾸로 윤 전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고, 탄핵 반대에 올랐다. 그러니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의힘이 조금도 억울해 할 일이 아니며 완벽한 자업자득이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인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탄핵 찬성 대 반대’ 구도를 만든 건 바로 국민의힘 자신이다.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서 거대한 방향착오를 한 것은 역시 당을 지배하는 ‘영남권 정서’를 빼놓곤 설명하기가 어렵다. 영남은 보수의 아성이며 국민의힘의 대들보다. 현재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영남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영남 출신을 합치면 60%에 가깝다. 수도권보다 영남은 강경 보수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에 매달린 게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주도권은 이미 수도권으로 넘어온 지 오래다. 국회 지역구 의석의 48%,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51%가 수도권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289만 표를 앞섰는데 수도권에서만 195만 표를 이겼다. 수도권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수도권에서 조금만 밀려도 결

과는 참패로 나타난다. 지난해 총선에서 수도권 득표율은 민주당 53.7%, 국민의힘 44.4%였는데 수도권 의석수는 민주당 102석, 국민의힘 19석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참패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최대 지지기반이 호남이지만 선거가 영호남 대결로 가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수도권 승부에 사활을 걸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민주당 당직자 가운데 호남 지역구 의원은 별로 없다. 심지어 대선 때는 일부러 호남 후보를 배제할 정도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모두 영남 출신의 변호사라는 게 어떻게 우연이겠나. 당과 지지층의 전략적 합작품으로 봐야 한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영남만 싸출아하면 수도권에서 뒤져도 전체적으로 승리한다는 사고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과거엔 먹혔는지 몰라도 인구학적 변화 때문에 요

**탄핵 정국 방향착오는 영남 의존 탓
수도권이 정치 주도권 잡은 지 오래
수도권 감수성 안 키우면 몰락 뻔해**

즘엔 전혀 안 통한다. 수도권에서 밀리면 그대로 망하는 구조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당의 전략·정책 노선과 인적 구성을 철저히 수도권 맞춤형으로 쇄신하지 않고선 어렵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면 영남 색채가 짙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원외 인사들의 발언권을 키우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 여론 변화에 당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수도권 인사가 정치를 편하게 하려고 영남으로 지역구를 바꾸는 건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오히려 영남에서 3선을 하면 다음 총선은 무조건 수도권에 출마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을 중태에 빠뜨린 병명과 처방은 이미 나와 있다. 국민의힘이 영남 안주에서 벗어나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건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www.joongang.com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석사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Xray / CT / MRI 리퍼럴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면역력 강화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항산화
- 심혈관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1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대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6월 스페셜 SALE

Special

최신 제품으로~ 업계 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성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돌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 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날 제품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 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 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흙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흙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2,900~~ **\$2,300**



~~\$3,000~~ **\$2,500**



본토흙침대 100% 생황토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흙 침대

휴표 흙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빻어 만든 휴표 흙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흙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휴표 흙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턴 지정 대리점

월턴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 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티핑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 편리한 작동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도, 거가들 채우고 따르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닥터 쿨**

물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0리터

강력도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심건, 관절염 증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눈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뻑뻑함 눈곱감·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뀔 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회용 매트

2020년 최우수 제품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40 Celebrating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JUNE 12th - JUNE 19th, 2025



LIMIT 10 LB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2 UP SIZE/LB

\$15.99



Kwangdong Vita 500 Vitamin-C Drink
광동제약 비타 500 비타민-C 드링크

100 ML X 20 EA/BOX



\$9.99 **LIMIT 2**
~~\$14.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JoongAng Ilbo Thursday, June 12, 2025 C

빙·난방 재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 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 하십시오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집 주변 식물 모두 제거, 비판 목소리 높아

5피트내 가연성 물질 금지
가주 내년부터 강제 시행
살아있는 식물은 불 막아
최신 연구결과 고려 안해



산불이 주택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피트 내 모든 식물을 제거하는 규제안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주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산불 방지 규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 새 규정은 '존 제로(Zone 0)'로 불리는 주택 주변 5피트 이내의 구역에 사실상 모든 식물과 가연성 물질을 금지한다.

기존의 산불 예방 지침은 주택 인근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권장했다. 그러나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불티 방지 구역(ember-resistant zone)' 계획은 잔디와 관목, 나무까지도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들어갔다.

이 제도는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주거 지역 피해가 늘면서 2024년부터 가주 전역의 고위험 산불 지역(WUI)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에서 보듯 기존의 소방 시스템으로는 산불 저지에 한계가 있고 일단 거주 지역으로 불이 번지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조치의 근거 중 하나는 UC버클리와 가주소방국의 연구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택 화재는 직접적인 화염 접촉보다는 날아다니는 불티에 의해 시작됐다. 불티는 건물 외벽 근처의 낙엽과 관목, 목재 구조물 등에서 발화해 집 전체로 번졌다. 불티가 집을 태우고 집이 다시 불티가 되는 고리를 끊는 조치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불티를 막아야 주택을 지킬 수 있다는 결론

시행 일정

연도	내용
2021-2023	시범 프로그램, 과학적 연구·가이드라인 발표
2024	고위험 지역 대상 자발적 시행 유도
2025	주정부 차원의 규제 확정·고시
2026	강제 시행(신축주택 적용 후 단계적 확대)

이다. 하지만 2026년부터 가주 전역에서 시행 예정인 이 규제안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발화와 연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잘 관리된 식물과 나무가 바람에 날리는 불티로부터 주택을 보호하고, 화재 확산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식물이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다. 실제로 대규모 산불이 휩쓸 후에도 일부 주택의 주변에는 푸른 나무가 남아 있다. 불길을 견딘 식물에서 흔히 관찰되는 그늘음은 소실된 건물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바람에 날린 불티가 주택을 먼

저 태웠고 주택 자체가 연료 역할을 하며 화재가 확산했음을 시사한다. 지난 1월 LA 대형 산불 이후 수천 채의 주택이 소실된 현장에서 이런 패턴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살아있는 식물이 불길에 노출되면 내부 수분이 증발하면서 불이 잘 붙지 않게 한다. 식물에 충분한 수분이 있으면 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실험 결과와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살아있는 식물에 불이 붙을 수 있지만 식물의 수분 함량은 불의 세기나 확산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 잘 관리된 녹색 식물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불티를 차단해 화재 확산을 늦추는 열 흡수체 역할을 할 수 있다. 호주의 사례 연구에서도 이러한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히 식물 관리뿐 아니라 주택 손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낙엽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빗물받이 덮개 설치나 가연성 외벽 금지, 다락과 바닥 통풍구에

불티 유입 방지용 그물망 설치 등으로 주택의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존 제로' 권고안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보험업계 기관이 대규모 실험을 통해 입증한 가연성 멀치(mulch)와 나무 울타리 금지 등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 조함은 모델링이 어렵고 지역마다 다른 복잡한 조건을 단순화하기 어렵다. 현재 규제안은 과학적 연구에서 밝혀진 식물 가연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잘 자라고 가지치기가 잘 된 관목이나 나무는 화재 위험이 낮다. 바람과 열을 차단하고 불티를 가로막아 화재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아스펜 나무가 대표적으로 건물 주변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권장 식물로 꼽힌다. 반면, 창문 아래나 울타리 옆의 관리되지 않은 마른 식물은 급격히 불에 붙어 주택으로 불길이 번지게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산불 예방 규정을 마련할 때, 잘 관리된 식생으로 얻을 수 있는 보호 효과와 도시 녹지 등 여러 이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가주의 규제안은 유지 관리보다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침식 위험까지 초래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주택의 미관과 에너지 효율에도 좋지 않다.

산불 확산 예방은 중요하지만 주택 자체의 화재 대응 능력이 함께 강화되지 않고 주택 주변 식생만 대규모로 제거하면 화재 위험 감소 효과는 적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이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안유희 객원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The Law Offices of Ronald S. Canter, LLC
로널드 센터 로펌 신지상 변호사
무료상담 (상법/상해/채무&채권 소송)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디씨,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 가능
301.545.2726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erllc.com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나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피싱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5주 숙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새롭게 준비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88기 4월 15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넓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률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http://부동산학교.com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p>SOLD</p> <p>3/15 오후 1시~4시 26977 Crusher Dr. Chantilly, VA 20152 \$1,500,000 6600 sqft의 고급집, 모델홈, 짐 펠로우로 아주 넓은 호수. 모델홈보다 더 모델홈 같은 집</p>	<p>1</p> <p>\$770,000 센터빌 싱글홈 방3, 화장실 3+1,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p>	<p>SOLD</p> <p>3/15 오후 10시~12시 7703 Lafayette Forest Dr. #22, Annandale, VA 22003 \$369,900 애넌데일에 있는 고급 콘도. 방2, 화장실2 집 전체 완전히 다 새것으로 수리</p>	<p>1</p> <p>\$640,000 워싱턴 디씨 NW 콘도 방2, 화장실 2, 차고 1 좋은 환경에 있는 고급 콘도. 메트로 근처</p>
버지니아			
<p>2</p> <p>\$875,000 센터빌 싱글홈 방4, 화장실 3+1,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바닥, 벽돌 집</p>	<p>3</p> <p>\$1,005,000 페이팩스 싱글홈 방5, 화장실 3+1, 차고 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p>	<p>4</p> <p>\$1,200,000 비엔나 타운홈 방4, 화장실 3+1, 차고 2 골프, 벽돌집, 5년된 아주 이쁘고 고급스러운 집</p>	<p>1</p> <p>\$720,000 저먼타운 싱글홈 방6, 화장실 4, 차고 2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부엌, 넓고 고급스러운 집, 좋은 가격</p>
메릴랜드			
<p>2</p> <p>\$950,000 클락스버그 싱글홈 방4, 화장실 4+1, 차고 2 18년된 벽돌집, 새집같이 잘 가꾸어진 집</p>	<p>2</p> <p>\$1,100,000 워싱턴 디씨 NW 콘도 방2, 화장실 2, 차고 1 전통적인 양식의 고급 콘도, 고급 동네에 위치</p>	DC	

퇴직연금 연수익 2.9% ... 퇴직하기 겁난다

(5년 평균)

적립금 400조 넘었지만 ...

작년 49조 늘었는데, 수익 4.8%뿐
자금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 묶여
새 정부 들어 '기금형 해법' 급물살
업계선 "수익개선 보장 없다" 반박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연간
수익률은 최근 5년간 2%대로 매우 저
조한 수준이다.

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
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은 총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3000억원(12.9%) 증가했다. 2019
년 221조원 규모였는데 해마다 13~16%

늘면서 5년 새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
인구가 많은 60~70년대생의 은퇴가 본
격화하면서 10년 뒤엔 1000조원에 달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제도 유형별
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49.7%(214
조6000억원)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이어 확정기여형·기업형IRP(DC)가
27.4%(118조4000억원), 개인형IRP가
22.9%(98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노후 대비로 퇴직연금이 주목받고
있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지
난해 연간 수익률은 전년 대비 0.5%포
인트 하락한 4.77%를 기록했다. DB형
보다는 수익성이 좋다는 DC·IRP 퇴
직연금 가입자도 10명 중 6명(60.6%)이
2~4%의 수익률을 얻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수익
률은 2.86%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
익률(8.13%)에 훨씬 못 미친다. 해당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2.4%인 점
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거
의 제로인 셈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자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퇴
직연금의 82.6%(356조5000억원)가 원
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됐다.

DC와 IRP를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17.4%(75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이
3.67%, 실적배당형이 9.96%로 2.7배 차
이다.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
끼를 잡는 방안으로 떠오르는 게 기금
형 퇴직연금이다. 현재는 근로자 개인
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인데,

이러한 퇴직연금 자산을 하나의 공적
기금 형태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
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가 불붙기 시
작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
물살을 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으로는
전문적인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효
과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일종의 '대기
효과'로 금융사 간 경쟁을 촉발해 수수
료 인하 등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거란
관측도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할 때 규모
의 경제(운용비용 절감과 수익률 제고)
를 이루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난립하
도록 두기보다 대형화해야 한다"고 말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퇴직연

금 기금화가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거란 보장은 없다고 반박한다.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
는 주식·채권 등 수익성 자산에 분산 투
자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지 기금화
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
제 기금형과 계약형을 혼용 채택하고
있는 일본·영국의 경우, 수익률에 유의
미한 차이가 없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의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전문가 자문
단을 출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
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기금화
할 경우 수탁법인(전문기관)을 어떤 형
태로 세울지, 주식·채권 수익률이 하락
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지 등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관치가 비트는 금리 ... '변동' 이 '고정' 보다 높다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대출)

은행 주담대 '관치 폐해'

은행들, 가계대출 관리 압박 받아
원가 1%p 하락 때 마진 1%p 늘려
금리 경쟁 실종, 소비자만 큰 피해
전문가 "금리, 시장원리로 결정돼야"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이 대출 마
진을 큰 폭으로 확대해 높은 금리를 유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대
출 총량을 지키도록 압박하면서, 인위
적인 금리 인상을 유도한 결과다. 시장
원리를 벗어난 관치 금리에 금리 경쟁
이 실종되고 소비자 부담만 커지고 있
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중앙일보가 은행연합회 공시자
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시중은행(KB국
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4
월 신규 주택담보대출(분할 상환 방식)
의 기준금리(연 2.79~2.85%)는 지난해
4월(연 3.79~3.87%)과 비교해 약 1%포
인트가량 떨어졌다.

주담대 기준금리란 은행이 대출에
쓸 자금을 조달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
다. 대출의 원가에 해당한다. 지난해 10
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서 하락했다.

대출의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
면, 은행권은 통상 대출 금리도 낮
춰 소비자 유치 경쟁을 한다. 하지만

올해 4월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
리(연 3.95~4.18%)는 지난해 4월(연
3.75~4.13%)과 비교해 오히려 올랐다.

은행들이 그만큼 마진을 확대한 것
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5대 은행의
주담대 마진(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
은 지난해 4월(연 -0.12~0.27%) 대비
올해 4월(연 1.13~1.37%) 1%포인트 넘
게 올랐다.

은행들의 '거꾸로 영업' 행태는 금융
당국이 조장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 6
월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반
영해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이 급증하자,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않는 은행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은
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
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
다.

실제 5대 은행의 주담대 마진은 지난
해 8월까지 연 0.1~0.6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연 1.27~1.55%)에는 1% 초중반까
지 치솟았다. 이렇게 확대한 마진은 가
계대출 증가세가 잠잠해진 올해까지도
유지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은행의 주담대 금리
는 과거 자금 조달 비용이 비쌌던 시
기와 비교해 높다.

올해 4월 코픽스(2.7%·8개 은행 대
출조달금리)와 비슷했던 지난 2013년
12월과 2013년 5월의 신규 주담대 가중

평균금리는 각각 연 3.74%와 연 3.77%
였다. 하지만 올해 4월은 연 3.98%로 이
보다 0.2%포인트 높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월별로 관리하기 시
작하면서, 은행들이 원래 형성될 대출
금리보다 금리를 더 올려 가계대출 수
요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관치로 인한 금리 왜곡은 고정과 변
동금리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의 5년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MOR)
는 연 2.8%로,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개월 MOR(연 2.55%)보다 0.25%
포인트 높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반대다. KB국
민은행의 10일 기준 주담대 고정금
리는 연 3.66~5.06%로 변동금리(연
4.09~5.49%)보다 0.4%포인트가량 낮
다.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자금조달 비
용이 고정금리보다 저렴하지만, 실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상품이 높게 실
정된 것이다. 이런 경향은 다른 은행도
유사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고
정금리 대출 비용을 확대하라고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 상품
의 금리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리 인하기엔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
는 것이 손해다.

김남준 기자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산타클로스의 고향, 미라의 성 니콜라스 교회

산타클로스의 모델은 고대 리키아
지역 미라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
(Santa Nicholas, 270~343)다. 평
소 이웃을 몰래 돕던 그는 매음굴
에 팔려 갈 가난한 세 자매 집 굴뚝
에 금화 주머니를 떨어뜨려 자매를
구해주었다. 12세
기 프랑스 수녀들
은 성 니콜라스 축
일인 12월 6일, 가
난한 아이들에게
물레 선물을 주는
풍습을 정착시켰
다. 17세기 신대륙



에 이주한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그
들식 발음으로 '산타클로스'라 한 것
이 미국식 산타클로스의 기원이다.

미라의 부호 아들 니콜라스는 조
실부모 후 막대한 재산을 자선하며
성직에 들어갔다. 젊은 나이에 주교
가 된 그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통
교리를 수호해 명성을 높였다. 누명
을 써 사형대에 선 3명의 장군을 변
호해 풀어 주었고, 풍랑을 잠재워
난파 위기의 선원들을 구해주었다.
어린이를 죽여 고기로 팔려 한 흉악
한 정육점에서 아이들을 구해내는
등 수많은 이적과 선행을 베풀었다.
그는 빈자·죄수·선원·어린이의 수
호자가 되어 최고 성인의 반열에 올

랐다.

리키아는 현재의 튀르키예, 아나
톨리아 반도 남부 지역으로 로마제
국에 속했으나 자치권이 강했고 미
라는 그 중심 도시였다. 당시의 암벽
묘지들과 원형극장, 그리고 520년

건립한 성 니
콜라스 교회의
유적이 남아있
다. 크고 작은
돔의 구조로 지
어진 전형적인
비잔틴 양
식의 대성당이

있다.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시대를
거치면서 흠에 묻힌 폐허를 1862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가 복원해
현 모습을 되찾았다. 성 니콜라스의
생애와 에피소드를 그린 프레스코
화들이 생생히 남아 성인의 전설을
되살리고 있다.

북극에 사는 붉은 옷의 후덕한 백
인 털보 할아버지가 무릎포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성탄 전야에 온다
는 산타는 19세기 미국 대중문화가
만든 근대의 신화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이들을 꿈꾸게 하는
크리스마스의 미덕은 1700년 전, 성
니콜라스가 실천했던 역사적 진실이
었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택	1610 Westmoreland Ct, McLean, VA	SALE	\$1,999,900	맥클린 고등학교 옆, HOA 없음, 홈스태이 하기 딱 좋은 집, 빙 7, 화장실 5.5, 실용적인 침구, 맥클린 다운타운도 가능, 집 앞 버스정류장 등 교통 편리
주택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4/20 마켓에 올라올 예정
매매 및 렌트	1631 Cecile St, McLean, VA	UNDER CONTRACT	\$1,430,000	맥클린 고등학교 걸이갈 수 있는 위치, 싱글홈, cul-de-sac, 오픈하우스 이를 보여주고 좋은 오픈 받아 계약
매매 및 렌트	1930 Battery Park, Vienna, VA	SALE	\$1,315,000	여러 오피스 공간 있고 특색, 이기는 오피스 자선 있음, 5/20 세들먼트 완료
매매 및 렌트	2325 9th St, S, Arlington, VA	SALE	\$925,000	5/23 세들먼트 완료
매매 및 렌트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ALE	\$501,000	복수 오피스 빌딩 리스팀 가격보다 높은 오피스 선택, 3주만에 세들먼트 완료 3/21 세들먼트 완료

갤럭시부동산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패어팩스 지역 북-여름 나을 집 렌트 리스팀 50여채 있음,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집 형태 (콘도, 타운, 싱글)	6-7월 말 입주 가능한 집	\$1,800-\$5,200 가격대 렌트 집 리스팀,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올 여름에 파던 나을 주택 60여명 있음, 렌트 높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6월 말-8월 초 입주 희망	\$2,000 - \$5,500 가격대 렌트
6867 Williamsburg Pond Ct, Falls Church, VA	7/28 입주가능	\$4,950 (매주 초-월요일) 중-목요일 고등, West Falls Church 메트로 걸어서 5분, 인접하고 좋은 단지, 9% 마후
1498 Hampton Hill Cir, McLean, VA	7/1 입주가능	\$5,800 방 4, 화장 3.5, 맥클린 내 유망하게 수명장 있는 단지, 맥클린 다운타운, 교통/상업 편리
8370 Greensboro Dr, McLean, VA	주인이 살고 있어 입주 가능	\$3,500 로트다 콘도 방 3, 화장 2, 커튼 없음, 집 전체 리모델링, 새 가전, 교통/상업 편리, 좋은 학교
1540 Hampton Hill Cir, McLean, VA	PENDING	크레딧 좋은 외국인 가족, 공실임이 바로 연결
1430 Lady Bird Dr, McLean, VA	NEW	주재원, 마켓에 내 놓지 않고 연결, 주인-세입자 So Happy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NEW	크레딧 좋은 외국인 가족, 공실임이 바로 연결
9690 Scotch Haven Dr, Vienna, VA	NEW	주재원, 마켓에 내 놓지 않고 연결, 주인-세입자, 무명 지원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NEW	주재원, 마켓에 내 놓지 않고 연결, 현. 단.유 세입자, 무명 지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리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의 30여제 더 있음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개인도 PE 대체투자상품으로 고수익 창출

(Private Equity)

프라이빗 에쿼티

프라이빗 에쿼티(Private Equity, 이하 PE)는 말 그대로 비상장(private)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 자본을 뜻한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사고파는 상장 주식(public equity)과는 달리, PE는 소수의 투자자가 모은 자금을 기반으로 비공개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기업을 통째로 인수한다. 사모펀드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는데, 사모펀드는 펀드가 조성된 방식에 기반을 뒤 부르는 명칭이고,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렇게 모인 자금이 투자되는 방식, 전략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어쨌든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며, 기업의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나중에 되팔아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다.

▶왜 프라이빗 에쿼티에 투자하는가

우선 높은 잠재 수익을 이유로 들 수 있다. PE는 전통적인 자산군에 비해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한다. 전통적인 자산군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는 연 15~25% 수준의 기대 수익률(IRR)을 추구한다. 성공적인 투자 사례의 경우 투자금 대비 2~5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이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개 시장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효율적인 시장이지만 비상장 시장은 정보 비대칭과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PE는 바로 이러한 '비효율'을 기회로 삼아 수익을 창출한다.

경영 개입을 통한 가치 창출 역시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의 이유로 볼 수 있다. PE는 단순 투자자가 아닌 경영 파트너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사회에 참가하거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고, 핵심 지표(KPI)를 재설정하는 등 실질적 기업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펀드매니저와는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

▶PE의 투자 구조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사회에 참가하면서 기업 혁신을 주도하는 경영 파트너의 역할도 수행한다.

장기투자 통해 비상장 기업 성장 지원
전통적 자산군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
유동성 떨어지고 정보 접근 어려워 주의
운용사 역량 따라 성과 편차 매우 커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된다. 먼저 투자 운용사 역할을 하는 GP(General Partner)가 있다. 펀드를 구성하고, 투자 딜을 발굴하며, 포트폴리오 기업을 관리한다.

그 대가로 수수료(2%)와 성과 보수(20%) 등을 받는다. 그리고 LP(Limited Partner)가 있다. 연기금, 대형 보험사, 패밀리오피스, 초고액 자산가 등이 여기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본을 제공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펀드의 유효기간은 보통 10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첫 5년 정도는 투자 및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간이고 이후 5~8년에 걸쳐 운영 개선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8~10년에 걸쳐 엑시트 및 청

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엑시트 방식은 기업 공개(IPO), 기업 합병(M&A), 또는 다른 PE에의 매각(secondary sale)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주요 전략

PE 투자 전략은 크게 지분 인수(Buyout)와 성장 자본(Growth Equity)으로 나뉜다. '바이아웃'은 대개 과반수 또는 지분 전부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기업을 탈바꿈시키는 전략이다. 레버리지(차입금)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LBO(Leveraged Buyout)'로도 불린다.

성장 자본 방식은 소수 지분만을 확보하되, 이미 수익 모델이 입증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IPO 직전 단계의 고속성장 기업이 대상이다.

성장에 가속을 붙여 이익을 창출하

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펀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특정 산업/지역에 집중하는 테마 전략을 쓰기도 한다

▶실제 사례

글로벌 PE 시장의 대표 주자인 블랙스톤(Blackstone), KKR, 칼라일(Carlyle) 등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며, 헬스케어, 에너지, 소비재, 테크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손을 뻗고 있다.

예를 들어, 블랙스톤은 한때 힐튼 호텔을 인수해 10년 만에 3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고, KKR은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을 인수한 뒤 ESG 전략을 접목해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

▶리스크와 투자 방법

PE는 프라이빗 시장의 다른 투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떨어진다. 단점이 있다. 펀드에 출자하면 보통 7~10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투자자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상장 주식과 달리 PE 투자는 기업 실사와 관리에 대한 정보 비공개도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고 불투명성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PE는 소수의 탁월

한 펀드가 수익을 집중적으로 실현한다. 즉, GP의 역량에 따라 성과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로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PE 펀드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은 최소 수백만 달러의 출자 요건도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로가 있다. 여러 PE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를 찾아볼 수 있다. 간접적으로 PE 시장에 노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아니면 상장된 PE 운용사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사모 펀드 기반의 뮤추얼펀드나 구조화 채권 등 PE 유사 구조의 대체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라이빗 에쿼티는 단순한 자본 투자가 아니다. 기업가치 창출에 참여하며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능동적 투자'의 대표 격이다. 물론 유동성과 정보 비대칭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만 열리는 기회의 창일 수 있다.

이제 PE는 더는 기관투자자만의 리그가 아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적절한 경로를 찾는다면, 일반 투자자에게도 비상장 시장의 성장과 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퀀트 에피소드 자산관리 대표

50세까지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

67세 은퇴시 연봉 6배 필요

"퇴직 늦추거나 지출 줄여야"

많은 사람이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은퇴 자산이 부족하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CNBC가 최근 보도했다.

매체는 "노스웨스턴뮤추얼의 설문 결과 국내 45~60세의 절반 이상은 연 소득 3배 이하만을 은퇴 자산으로 보유

하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은퇴플랜 제공업체인 피델리티는 67세에 은퇴한다는 가정하에 50세까지 연 소득의 6배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재정 설계사 네이션 세베스타는 "늦게 은퇴하거나 생활 수준을 낮추어 지출을 줄이는 사람이라면 피델리

티의 기준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나 필요인지 알아내기 위해 거꾸로 계산해 보라고 권했다.

우선 은퇴 뒤 원하는 연간 소득을 결정하고, 그 소득이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할지를 추정한다. 그 총액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계산한 뒤 매년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세베스타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은퇴 뒤의 기대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RENT

센터빌 타운홈
\$2,950

방3, 화2.5, 차고1, 굿로케이션
수리중: BrandNew LVP Floor,
전체Paint, Ceiling Lights, Blinds,
냉장고, 마루계단, 차고도어 등
**7월1일부터 입주가능

버크 싱글홈
\$1.25M

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숨이 아름다운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종교 자선단체도 실업보험 면제

가톨릭에 면제 인정 안 한
위스콘신주 결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
종교자유 보호 입장 재확인



가톨릭 자선국이 텍사스에서 중미 출신 이민자에게 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가톨릭 자선국은 주정부가 실업보험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 위스콘신 주가 가톨릭 자선단체에 실업보험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종교 단체에 우호적인 판례를 이어온 종교자유 보호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니아 소도마요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번 사안은 종교 보호 원칙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스콘신주의 결정이 수정헌법 1조의 종교자유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스콘신 주법은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산하 단체에 대해 실업보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과 산하 4개 기관에 대해 “종교적 동기가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 자체는 세속적”이라며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스콘신 주정부는 이 단체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등에서 종교 교육을 하지 않으며 직원이나 수혜자에게 가톨릭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가톨릭 자선국은 비영리 법률단체 ‘종교 자유 베켓 기금’의 법률 지원을 받아 위스콘신주가 자신들을 다른 종교 단체들과 다르게 대우한다고 주장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비신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면제에서 배제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주가 일부 종교 단체는 면제하고 다른 단체는 면제하지 않

는 것은 ‘자선활동 시 교리를 전파하는냐는 신학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종교 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종교 권리와 관련해 이념적으로 갈라졌던 다른 사안들과 달리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이번 사안이 ‘종교 대 비종교’ 구도가 아닌, 특정 종교 유형 간 차별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종교 자유 베켓 기금’의 에릭 라스바흐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가톨릭 자선단체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종교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이 1971년 이후 줄곧 주의 실업보험 제도에 참여해왔으며, 초기 등록 서류에서도 그들의 업무를 ‘자선적’, ‘교육적’, ‘재활적’으로 규정했을 뿐 ‘종교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스콘신주의 콜린 T. 로스 법무차관은 이번 판결이 광범위한 세금 면제 확대

로 이어질 경우, 종교계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 법무차관과 지방정부 협의체들은 보험료 납부 기관이 줄어들 경우, 주 정부들이 모든 종교 면제를 폐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톨릭 자선국은 교회 자체의 실업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동일한 최대 급여액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권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급 보장이 없고, 기금 고갈 시 보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연방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의 레이첼 레이저 대표는 이번 판결이 “종교를 명분으로 노동자 보호를 회피하려는 위험한 흐름을 강화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유희 객원기자

그리스·로마 문화-그리스도 사상 통합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플라톤에 기반한 신학 정립
‘고백록’은 신에 바치는 기도
서유럽 그리스도교 사상 형성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에 주목했고, 영혼 불멸의 사상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부합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에 기반을 두고, 그리스도교 신학을 만들었다. 물론, 교부철학과 신 플라톤주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그는 인간의 지성과 앎은 선(善)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에 영향을 받았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지식은 선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므로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 사상을 통합한 사상가였고,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으로 여긴다.

그의 저서인 ‘고백록’은 성경을 제외하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자서전 문학의 효시와도 같은 작품이다.

그 책은 단순한 참회록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찬양과 기도 같은 책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 관해 가장 생동감 있게 성찰한 책이기도 하다.

고백록은 인간 내면의 지주가 되고 빛을 밝혀주는 ‘내면의 신의 사상’으로서 그 후, 서유럽 그리스도

교 사상을 형성하는 힘이 되었다. 그는 한때 공부보다도 여성에 관심이 많아 18세에 미혼부가 되었다. 아들을 출생하고 나서야 수사학 공부에 매진했다. 그는 성서의 내용에 실망하여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다. 그는 암브로시오 주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석도 해야 함을 배우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교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마니교에서는 선 자체를 전능하신 신이 창조했다면, 이 세계에 왜 악(惡)이 함께 존재하는냐는 것이다. 이것은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질문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 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노스의 논리를 따른다. 즉,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는 것이다. 가령, 그림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결핍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악은 그림자처럼 실체인 빛이 가려질 때 일시적으로 선의 결핍과 빛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악이 실제로서 존재한다면 이를 창조한 신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에 답을 준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는 세계를 선하게 창조했지만, 이 자연주의 본성에 결핍이 생기면서 악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악의 조성자는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며, 인간 내면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탐욕과 자유로운 의지의 잘못된 사용이라고 했다.

이슬람 하즈 성지순례자 30년만에 최소

인플레·불경기·폭염 영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 중인 올해 하즈(이슬람 성지순례)에 참가한 순례객이 167만3,230명으로 집계됐다. 사우디 정부가 6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이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 사이 가장 적은 숫자다. 하즈를 관광하는 사우디 순례부는 사

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전체 참가자 가운데 해외 순례객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조한 참가 원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순례객 수는 지난해보다 약 16만 명 줄었다. 2012년 기록한 316만 명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코로나 19 확산 시기인 2020~2022년에는 순례 규모가 대폭 축소돼 몇만 명 수준으로 한

정됐지만, 2023년부터 제한이 풀리며 정상화에 속도가 붙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가 순례 비용을 끌어올려 ‘영혼의 여정’을 꿈꾸는 무슬림들에게 부담이 됐다고 분석한다. 50도에 육박하는 사우디의 혹서와 강화된 입국 규정도 순례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즈는 이슬람 5대 의무 가운데 하나로,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번은 메카로 향해 신앙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순례객들은 회개와 속죄를 통해 과

거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다짐한다.

올해 하즈에서는 12세 미만 아동의 순례 참여가 금지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정책 변화 중 하나로, 사우디 정부는 군중 속에서 아동 안전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4000~2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도 순례자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도입했고 일부 국가는 분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20% 선납 후 라마 단 중 40%, 다음 달에 40%를 분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사우디 정부는 또 무단 입국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지난해 하즈 기간 중 사망자 다수가 미등록 순례자로 확인되면서, 정식 등록 없이 메카에 입성하려는 이들에게 최대 2만 리얄(약 53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국제 무슬림 단체들은 하즈 참가 비용을 낮추고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팅

2025 주택 동향 (부동산 시장 불안정) 금리인하의 불확실성, 주택 매물 부족, 부동산 가격 하락은 여전히 부정적.

주택 구입 전략!

1. 주택 대출 금액을 알아본다.
(세금보고서 2년치)
2. 주택 모기지 납입능력 금액을 책정한다.
3. 구입금액설정후 구입지역을 설정한다.

* 여러각도에서 같이 고민해 드리는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셀러 집 판매 전략!

- ★ 아직도 매매 물량이 부족한 시기라
집 팔기 좋은 시점입니다.
- ★ 셀러를 대변하는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매매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스탠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 화장실3.5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렌트 \$3,600

렌트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찬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우드브리지 \$3,200 방3 +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맥클린 로톤다 콘도 방2 + 화장실 2, 즉시 입주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렉스 유
New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

법인과 신탁

소유형태마다 책임 범위·조세 방식 차이
부동산 구매 목적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개인이 아닌 법인 혹은 신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꼭 개인만이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나 신탁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구조에 따라 책임 범위와 조세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체 혹은 법인을 통한 소유입니다. 가장 단순한 구조는 개인 사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소유하는 사업체의 형태로 사업과 관련된 수익은 물론 손실과 법적 책임도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부동산 역시 개인 명의로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복잡한 구조는 공동사업체, 즉 파트너십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구조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됩니다.

일반 파트너십은 모든 구성원이 무한 책임을 지지만, 유한 파트너십의 경우 일부는 운영 책임을 지고 나머지 투자자는 책임이 제한됩니다.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법인(주식회사)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빚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 법인(C-Corp)은 법인 자체가 소득세를 내고, 주주들은 배당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반면 S코퍼레이션(S-Corp)은

소득이 주주에게 직접 귀속되는 구조로 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최근 많이 활용되는 구조는 LLC, 즉 유한 책임회사입니다. 법인처럼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도 소득이나 손실에 대한 세금은 구성원 개인의 세금 신고로 이어지는 패스스루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보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구성원 수에도 제한이 없어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와 유사한 LLP(유한책임 파트너십)은 모든 구성원이 제한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위험 분산에 효과적입니다.

신탁도 중요한 부동산 소유 수단입니다. 신탁은 자산을 제삼자가 관리하도록 설계한 법적 장치로, 상속, 자산 보호, 세금 전략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생전 신탁(Living Trust)은 사망 시 유언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상속 계획에 많이 사용됩니다.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은 유언장에 따라 사후 설립되며, 철회불가신탁(Irrevocable Trust)은 한번 설정하면 변경이 어려운 대신 일정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개인 외에도 다양한 법적 구조를 통해 소유할 수 있고, 각 구조는 고유한 법적 효력과 조세 방식, 책임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만 고려하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구조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캐티리
드림부동산

주택 판매 전략

인테리어 스타일링으로 첫인상 개선
온라인에서 시선 끄는 사진과 영상 필수

매년 여름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사 성수기'로 통한다. 특히 2025년에는 팬데믹 이후 주거 이동이 활발해지고 바이어 수요도 회복 중이다. 이런 시기에는 경쟁 매물도 많기 때문에, 내 집을 '제값 받고 빠르게' 팔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팁이다.

첫 번째,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 난다. 프런트와 인테리어 스타일링에 투자하자. 가족사진, 종교 관련 장식, 이름이 새겨진 물건은 모두 치우고, 방이 더 넓어 보이도록 가구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강한 색상의 벽은 뉴트럴 톤(화이트, 그레이, 베이지)으로 리페인트, 카펫과 커튼은 깨끗하게 세탁, 키친과 욕실은 호텔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좋다.

프런트도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잔디는 깔끔하게 잘려져 있는지, 나무나 덩굴은 다듬어졌는지, 현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먼지 때가 묻어있는지, 우체통, 초인종 상태는 괜찮은지, 조경이나 조명은 밤에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이는지 등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함이다. 누구나 쉽게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시선을 끄는 사진과 영상은 필수다. 요즘 바이어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첫 매물을 접한다. 전문가가 촬영한 밝고 공간감을 살린 이미지와 영상투어는 클릭률을 높이고 소임 예약으로 이어지게 한다.

세 번째, 시장의 흐름에 맞는 가격 전략

이다. 부동산에서 '가격은 마케팅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멋진 집이라도 가격이 시장보다 높게 설정되면 바이어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결국 시장에 오래 남게 되면서 가격을 깎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따라서 집을 내놓을 때는 데이터 기반의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일부러 조금 낮게 가격을 책정해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다수의 오퍼를 받아 '가격을 올리는 전략'도 유효할 수도 있다. 단, 집의 상태나 위치가 아주 평범하다면 이 전략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가격이 너무 높아 바이어의 관심을 못 얻으면 첫 2주 안에 소임이 거의 없고, 온라인 클릭 수나 에이전트 관심이 낮아진다. 그래서 일정 시점 후 가격을 내리게 되면, 바이어들은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고, 결국 원래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오픈 하우스는 '스토리 있는 연출'로 차별화를 두는 것을 추천한다. 계절에 맞는 음악, 간단한 스낵, 지역 정보가 담긴 브로슈어 등을 준비하면 방문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집 관련 서류와 인스펙션을 미리 준비한다. 셀러 측에서 프리 인스펙션이나 수리내용 정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바이어 입장에서 신뢰가 가고, 협상도 매끄럽게 진행된다.

올해 또는 향후 몇 년 안에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 무주택 청년 1만5000명에 월세 지원한다... 월 최대 20만원

알면 쓸쓸한 경제 비극

서울시가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 환산액(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

용)과 월세 합산이 93만원 이하일 경우도 가능하다.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직장 가입자는 12만7230원, 지역 가입자는 5만8386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1억3000만원 초과 재산 보유자·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정부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등



도 신청할 수 없다. 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자필서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와 120다산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자를 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하는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2020년부터 누적 11만4000여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서해빈 기자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후원 투자 리빙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p>	<p>UNDER CONTRACT</p> <p>Rockville MD</p> <p>싱글홈 \$759,000 방4, 화3</p>	<p>Bethesda MD</p> <p>싱글홈 \$1,295,000 방4, 화2/1</p>	<p>Gwynn Oak MD</p> <p>싱글홈 \$419,000 방4, 화3</p>
	<p>COMING SOON</p> <p>Elkridge MD</p> <p>타운홈 \$559,000 방4, 화3/1, 차고1</p>	<p>UNDER CONTRACT in 3 days</p> <p>Nottingham MD</p> <p>싱글홈 \$449,000 방3, 화2</p>	<p>COMING SOON</p> <p>Columbia MD</p> <p>타운홈 방3, 화2/1, 차고1</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RENTED</p> <p>Columbia</p> <p>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p>	<p>RENTED IN 3 DAY</p> <p>Columbia</p> <p>월 \$3,100 타운홈 방5, 화4</p>	<p>RENTED</p> <p>Odenton</p> <p>월 \$3,000 타운홈 방4, 화4</p>	<p>RENTED</p> <p>Bowie</p> <p>월 \$2,800 타운홈 방3, 화2</p>	<p>RENTED</p> <p>Pasadena</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2.5</p>	<p>RENTED</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RENTED</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

고객만족도 전미주* 1등 US이주투어** 41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가족, 친구에게 여행을 선물하세요! 아주투어의 **여행상품권 AJUMONEY!**

가장, 친구에게 여행을 선물하세요! 아주투어의 **여행상품권 AJUMONEY!**

1-800-933-3011

LA 직통 213-388-4000 | 2789 W Olympic Blvd, #102, L.A., CA 90006

본 상품은 LA출발 가격입니다. 타도시 출발은 계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02-522-8686 ■ info@usajutour.com ■ 무료픽업 가든그로브, 놀워, 토렌스, 가디나, 플러턴, 세리토스, 부에나팍, 다이아몬드바, 로렌하이츠, 엘바인(4명이상) 등

봄맞이 이벤트

'25 VIP버스로 이동합니다!

태평양 기차여행/레드우드

2일 ▶ 6/24, 7/4 \$349

30명 이상은 단체투어 가능!

아주가 '스위스 융프라우'로 모십니다!

롭니바퀴 열차로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느껴세요!

서유럽 11일 \$3399 +항공료

7일 \$2299 +항공료

이태리일주 7일 \$1999 +항공료

▶ 7/8, 29, 8/12, 9/2, 16, 30, 10/14, 12/21

▶ 6/23, 7/12, 8/2, 16, 9/6, 20, 10/4, 18, 12/25

서유럽! 선택은 아주뿐!

일정: 베르사이유 궁전 내부 가이드 설명, 베니스 단독 전세 유람선과 곤돌라 포함

호텔: 런던-힐튼, 파리-폴만, 스위스-선스타(4성급 산장호텔), 로마-쉐라톤

식사: 전일정 호텔조식, 융프라우 해발 3454m서 중식, 스위스 산장호텔 석식, 파리 에스까르고 요리, 베니스 삼겹살석식, 피오렌티나 스테이크, 카르피 섬에서 중식, 로마 폴코스 해물석식

가이드: 20년 이상 경력의 아주전문 가이드 동행

캐나다 아가와 단풍 5일

▶ 9/29, 10/3, 10 \$1599 +항공료

캐나다 아가와 단풍+퀘벡 8일

▶ 9/29, 10/3, 10 \$2399 +항공료

알콘 주립공원, 수세인트마리 2박, 서드버리, 그레이브 허스트, 오타와, 몽트랄블랑, 몬트리올, 몽모렌시 폭포, 킹스턴,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올드퀘벡

특급호텔, 대형버스

반환 맞이 이태리일주 7일 \$1999 +항공료

가득찬 가을이네요! ▶ \$1999 ▶ \$999 +항공료

6월 7월 8월 방학 특선 ▶ 6/23, 7/12, 8/2, 16

\$800 할인 찬스! 북유럽 4개국 11일 \$4999 ▶ \$4199 +항공료

4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7/15, 8/5, 19, 9/2

\$600 할인 찬스! 북유럽/발틱 7개국 14일 \$5999 ▶ \$5399 +항공료

7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7/15, 8/5, 19, 9/2

\$200 할인 찬스! 발틱일주 3개국 6일 \$2199 ▶ \$1999 +항공료

3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6/24, 7/23, 8/13, 27, 9/10

NEW 특가 스위스일주+돌로미테 10일 \$5399 +항공료

인솔자 동행! NO 옵션! ▶ 9/15 \$5399 +항공료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 아젤발트 방문!

산티아고 순례길 9일 \$2949 +항공료

LAX 왕복항공 포함! ▶ 9/16 \$2949 +항공료

전문인솔자 동행!

아주투어 상품 구매시 여행시 편리한 린블러 증정

해외여행을 구입한 모든 분들께 고급 린블러를 드립니다! (배송 불가)

완전 특가 튀르키예일주 10일 \$1499 +항공료

▶ 6/25, 7/15, 8/5, 19, 9/16, 10/7

동유럽/발칸 13일 \$3299 +항공료

▶ 7/11, 8/1, 9/4, 18, 10/2, 16

동유럽일주 7일 \$2099 +항공료

▶ 7/15, 8/5, 9/8, 22, 10/6, 20

크로아티아 발칸 9일 \$2599 +항공료

▶ 7/15, 8/5, 9/8, 22, 10/6, 20

튀르키예/그리스일주+산토리니 13일 \$3499 +항공료

▶ 6/25, 7/15, 8/5, 19, 9/16, 10/7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3일 \$2999 +항공료

▶ 9/10, 10/1

스페인/포르투갈 11일 \$2499 +항공료

▶ 9/9, 23, 10/15

경험 많은 회사라야 안심입니다! 41년의 경험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아주모국 관광

1. 27인승 VIP 버스 2. 초특급 5atar 호텔

3. 전국 각지 맛집 탐방 4. 한국지사 직접운영

단독출발인사 꼭 확인하세요!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제주+모국일주 10일 \$2199 +항공료

제주+모국일주+서울 11일 \$2499 +항공료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전통성당, 담양 죽녹원, 목포 해상케이블카, 순천 낙안읍성, 여수 오동도, 낭만포차 거리, 진주 축석루, 통영 중앙시장, 외도, 제주 2박(통갈치구이, 흑돼지구이 특식 2회), 부산 국제시장, 경주 불국사 & 동궁과월지, 안동 하회마을,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설악산 국립공원, 신홍사, 권금성 케이블카

원소 제주 3일 \$499 +항공료 부영 호텔(신라 가능)

서해/제주 7일 \$1499 +항공료 동해/제주 6일 \$1299 +항공료

서해/남해 5일 \$999 +항공료 동해/부산 4일 \$799 +항공료

대한노인회 마주 총연합회 단독일정! 5성 초특급호텔! 인솔자 동행! 각지역 맛집!

회원 특가 모국단풍+베트남 12일 \$2358 +항공료

▶ 10/26

회원 특가 베트남 5일 \$658 +항공료 **회원 특가 모국단풍 8일 \$1699** +항공료

▶ 10/30 ▶ 10/26

라디오코리아와 함께하는

일본삿포로 6일 \$1599 +항공료

▶ 1차 10/18 2차 10/27

일본삿포로+모국단풍 11일 \$3299 +항공료

▶ 1차 10/18, 2차 10/27

정통미서부

새 5성 호텔! 폰테인블루 숙박

아주단독! 라스베가스 스피어

아주로만 가야하는 5가지 이유!

1. 최신형 버스! 32인승 새 VIP 버스!

2. 새 5성급 호텔 라스베가스 폰테인 블루 숙박!

3. 한인 유일의 컨트랙트 라스베가스 스피어!

4. 꼭 확인하세요! 라스베가스 2박인사!

5. 단독 컨트랙트 요세미티 마리포사 그르브!

미서부완전일주 7일 \$1489 +항공료

2개 상품이 하나로! 더 착한 가격 & 알찬 일정! 그랜드캐년, 브라이스, 자이언, 앤텔롭캐년, 라스베가스,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솔베이 등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앤텔롭캐년 4일 \$839 +항공료

아주단독! 페이지 햄튼 숙박! 라스베가스 조인 ▶ 월 \$839 +항공료

미서부 투어의 핵심 4대캐년을 한번에!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4일 \$889 +항공료

레드스, 메리엇 특급호텔 2박!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솔베이 등 **라스베가스 조인**

NEW 특가 그랜드캐년노스립+자이언 트래킹 3일 \$599 +항공료

▶ 단 2회! 6/7, 21

미동부 뉴욕맨해튼, 워싱턴DC, 나이아가라 폭포, (로르노, 킹스턴, 록펠, 몬트리올, 우드버리 등) **올드퀘벡 숙박**

5일 \$1150 +항공료 **8일 \$1700** +항공료

▶ 수, 토 ▶ 수, 토 ▶ 수, 토 ▶ 수, 토

캐나다동부 6일 \$1399 +항공료

원소 엘로스톤/그랜티톤 4일 \$899 +항공료

▶ 7/3, 9/4 ▶ 매주 월, 금 항공료 포함!

특선: 솔트레이크 왕복항공 포함, 힐튼호텔 2박, 본사 전문가이드

내용: 가이즈/맘모스/루즈벨트/캐년/레이크, 칸슈리, 울드 웨이스폴, 미드웨이 간헐천, 노리스, 맘모스 핫스프링, 타워 폭포, 헤이든 밸리, 아티스포인트, 머드볼케노, 웨스트덤

밴쿠버 왕복, 출발보장, 밴쿠버 숙박 보장

캐나다북키 6일 \$1199 +항공료

▶ 매주 월

밴쿠버 시티투어, 홉스산, 자스퍼, 야사바스카 폭포, 콜럼비아 아이스필드, 밴프 스프링스 호텔, 보우 폭포, 배드 콘돌라, 모래인 레이크, 페이토 레이크, 보우강/폭포, 비고리아 마운틴, 에메랄드 레이크, 빅토리아 부차드 가든 등.

북키 5대 호수를 가는지 꼭 확인!!

모래인 레이크, 페이토 레이크, 보우 호수, 레이크 루이스, 에메랄드 레이크

연어회+와인특식, 세계최대 국립공원(세계 최고 육지방한인 마타누스카 빙하)

알래스카 6일 \$1699 +항공료

▶ 매주 월 **앵커리지 노스톱!**

발데즈 오션뷰 호텔 2박! ▶ 면사포 폭포, 말로리 폭포

▶ 연어 부화장: 바로 눈 앞에서 보는 수백마리 연어체첩, 공이 연어사냥 체험

▶ 발데즈 박물관: 발데즈 역사 체험 ▶ 웅글스 국립공원: 세계최대 국립공원 (유엔세계문화유산 지정), 영화관람 ▶ 마타누스카 빙하: 세계 최고 육지방하

큰바위열곡 4일 \$1049 +항공료

+ 크레이지호스 ▶ 7/4, 8/29

덴버 왕복항공! 모든 옵션 포함!

덴버, 사이언, 크레이지호스, 마운트 러쉬모어 레피드, 배드랜드, 록키산맥, 에스테스 팍 등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특급호텔**

중앙아시아 3개국 12일 \$3999 +항공료

▶ 9/13 출발예정! 박빙석교수 동행

특급호텔 아르헨티나와 칠레 파라과이 모두를 보는 상품입니다!

파타고니아(2개국)&빙하탐사 크루즈 15일 \$11900 +항공료

▶ 11/6, 12/4 가이드 동행!

칠레 파타고니아&빙하탐사 크루즈 10일 \$8449 +항공료

남미일주 13일 \$4699 +항공료

▶ 3인이상 수시

브라질/아르헨티나 7일 \$2599 +항공료

▶ 3인이상 수시

페루일주 7일 \$2199 +항공료

잉카, 마추픽추, 나스카 ▶ 3인이상 수시

멕시코시티&중부 5일 \$1290 +항공료

아즈텍 문명, 동굴테라스 온천포함

우유니사막(볼리비아)+페루일주 10일 \$3899 +항공료

▶ 3인이상 수시

코스타리카 6일 \$1199 +항공료

▶ 7일 \$1349 +항공료

힐튼호텔 보장 ▶ 매주 월

세계최대의 활화산온천에서 야외 온천 때바론 온천욕, 호텔 석식, 로스라고스 천연온천호텔 2박

칸쿤 ▶ 매일출발 **HYATT 오션뷰(올인크루시브)**

4일 \$1100 +항공료 5일 \$1500 +항공료 6일 \$1900 +항공료

로스카보스 (바하칼리피니아) ▶ 2인이상 수시 **올인크루시브**

4일 \$1050 +항공료 5일 \$1350 +항공료 6일 \$1650 +항공료

마주 크루즈

로얄 프린세스호(1405톤) ▶ 가이드 동행, 유람선+세금+항만세 포함

알래스카 8일 \$1499 +항공료

▶ 6/28, 7/12, 26, 8/16, 30, 9/13

멕시코리비에라 6일 \$549 +항공료

▶ 7/15, 8/12, 9/9, 10/2 **통비치 출발 가이드 동행**

서지중해발코니 10일 \$3099 +항공료

▶ 10/31 **가이드 동행, 항공료 포함**

두바이/이집트일주 12일 \$3899 +항공료

▶ 10/13, 11/10, 2/9/26 **전문 가이드 동행/전일정 입장료 포함**

이집트/요르단 12일 \$3999 +항공료

▶ 11/10

이집트일주 9일 \$3299 +항공료

▶ 11/10

동남아&일본

아주에서 가시면 안심입니다! 한국지사에서 육식을 골라 편안하고 알찬 일정으로 모십니다!

일본일주 7일 \$1899 +항공료

▶ 9/16, 10/7, 21, 11/4 ▶ 수시

베트남/캄보디아 7일 \$1199 +항공료

▶ 수시

태국/캄보디아/베트남 12일 \$1700 +항공료

▶ 10/20, 11/3, 11/17

하와이/마우이

▶ 월, 목 출발, 공항 왕복픽업 호텔조식, 오후우섬 일주 호놀룰루 시내관광,

와이키키 리조트 ▶ 와이키키 메리엇 ▶ 해트 리젠 와이키키 ▶ 셰라톤 와이키키

4일 \$949 +항공료 4일 \$1149 +항공료 4일 \$1249 +항공료 4일 \$1399 +항공료

5일 \$1099 +항공료 5일 \$1349 +항공료 5일 \$1499 +항공료 5일 \$1749 +항공료

아프리카+UAE 두바이 ▶ 10/15 2/24/26 ▶ \$13900 ▶ \$9999 +항공료

사파리를 제대로 즐기는 아주투어! 호텔/식사 즐기며 소문난 아주투어! VIP요금(5월 31일까지)

베테랑 가이드 동행! 1. Victoria falls 특급 호텔 2. 6성급 사파리 랫지 호텔 3. 에어콘 프리미엄 사파리 차 4. 사파리투어를 항공이동으로 2일 절약 5. 두바이 레이저 빌 & 분수쇼 관람하며 식사 6. 테이볼 마운틴에서 익스프레스 케이블카

남태평양 ▶ 피지/호주/뉴질랜드 ▶ 뉴질랜드/호주

A 13일 \$3799 +항공료 **B 11일 \$3299** +항공료

가이드 동행! ▶ 10/21, 25, 11/4, 25, 12/2, 25, 2/2/26, 23

인도/네팔 14일 \$3999 +항공료

▶ 11/10 ▶ 4899 ▶ 4299 ▶ 3999

가이드 동행! \$600 할인 찬스!

NO 옵션, 델리 IN & OUT, 국내선 항공 5회, 전일정 5성급호텔, 전통식 & 호텔식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LA출발 비수기 주중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각 상품별 요금은 US이주투어 웹사이트 www.usajutour.com에 명시되어 있듯이 필수 서비스 Fee가 불포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상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 후반전 한국 이강인이 추가골을 넣고 있다.

한국, 예선 1패도 없이 월드컵 간다

최종전서 쿠웨이트 4-0 완파
영건들 맹활약 홈서 골 폭죽
손흥민 출전, A매치 역대 3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최종 10차전에서 전반 전진우(전북)의 선제골과 후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추가 세 골을 쏘아 쿠웨이트에 4-0으로 완승했다. 홍명보 감독은 그간 교체로 활용되거나 벤치를 지키던 어린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기용하고도 홈 팬들 앞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두며 북중미행을 자축했다. 이미 지난 5일 이라크와 원정 9차전

에서 2-0 승리를 지휘하며 최소 조 2위의 성적을 확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은 한국은 대승을 거둬 예선을 조 1위로 마무리했다. 또 16년 만에 월드컵 예선을 무패로 마치는 진기록도 썼다. 한국이 5~6개 국가가 리그로 최종예선을 치르는 현재와 같은 방식에서 '예선 무패'의 성적을 낸 건 1990년 이탈리아 대회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한국은 134위 쿠웨이트와 상대 전적에서 14승 4무 8패로 격차를 벌렸다. 홍 감독은 이라크전과 비교해 무려 7명을 바꾼 선발 명단을 제출했다. 후반 24분 박승욱(김천)과 이재성(마인츠)이 전진우, 배준호 대신 투입됐고, 후반 30분엔 설영우와 오현규가 몰려나고 양현준(셀틱), 손흥민(토트넘)이 경기에 나섰다. 손흥민은 A매치 통산 134경기에 출

전해 이운재 베트남 대표팀 골키퍼 코치(133경기)를 제치고 우리나라 역대 대표 선수 최다 출전 부문 단독 3위로 올라섰다. 공동 선두인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홍 감독(이상 136경기)과 격차는 2경기로 좁혀졌다. 한국은 전반 30분 전진우의 헤더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전반 2분 자신이 내준 패스에 이은 배준호의 슈팅이 옆 그물을 때려 아쉬움을 삼켰던 이강인이 4분 뒤 직접 추가골을 책임졌다. 골 폭죽은 계속됐다. 후반 9분 배준호가 왼쪽에서 넘겨준 헤더 패스를 오현규가 멋들어진 오른발 터닝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출렁이며 자신의 4번째 A매치 득점을 기록했다. 후반 27분에는 이재성이 교체 투입 3분 만에 득점포를 쏘았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김주성이 내준 공을 정면에서 강하게 왼발로 슈팅해 4-0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악마의 코스' 서누가 웃을까

US오픈 골프 12일 개막

긴 러프에 빠른 그린
쇼플러 "매 홀이 전투"

최고 선수가 더블, 트리플 보기로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가학 성향 팬이라면 올해 US오픈 골프대회를 꼭 봐야 한다. 12일 개막하는 제 125회 US오픈은 "지구촌 가장 어려운 골프장"이라는 피츠버그 인근 오크몬트 골프장에서 열린다.

US오픈 측은 전장과 러프는 길게, 페어웨이는 좁게, 그린은 딱딱하고 빠르게 한다. 우승자 스코어가 이븐과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오크몬트는 "US오픈을 위해 만든 코스"라는 말까지 듣는다. 지난 9일 공식 인터뷰에서 저스틴 토머스는 "이곳은 그냥 뒤도 US오픈 코스라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어렵게 하기 위해 별로 할 게 없다"고 했다.

오크몬트의 최고 난제는 그린이다. 오크몬트 회원들은 특히 그린 빠르기에 집착한다. 이들은 다른 클럽 회원을 초대할 때 빠른 그린에 갇혀 있는 걸 보며 클럽하우스에서 킥커리는 사디스트라고 한다. 오거스타 내셔널보다 더 빠르다. 그린 스피드 측정기인 스템프미터가 태어난 곳도 이곳이다. 1935년 대회에서 진 사라센의 퍼트가 그린 밖으로 굴러 나가는 걸 보고 만들었다. 스템프미터 수치가 '매우 빠르다'인 13을 넘어 15에 이르기도 한다. "마커로 쓰는 동전도 그린에서 미끄러질 정도"라고 농담하는 선수도 있다. 원로 골퍼 리 트레비노는 3퍼트가 잦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한 홀 2퍼트를 할 때마다 리더보드에서 몇 명을 추월한다"고 말했다.

코스는 1903년에 문을 열었다. 창립자 헨리 파운스는 자신이 세운 철강회사를 앤드루 카네기에 팔고 골프에 천착했다. 그는 "골프장은 아름다움 경연장이 아니다. 서툰 자, 좇대 없는 자, 변명에 익숙한 자는 몰려가라. 잘못 친 샷은 돌이킬 수 없는 샷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코스는 1903년에 문을 열었다. 창립자 헨리 파운스는 자신이 세운 철강회사를 앤드루 카네기에 팔고 골프에 천착했다. 그는 "골프장은 아름다움 경연장이 아니다. 서툰 자, 좇대 없는 자, 변명에 익숙한 자는 몰려가라. 잘못 친 샷은 돌이킬 수 없는 샷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US오픈 골프 대회가 열리는 오크몬트 골프장. **[로이터]**

그는 아들에게 "골프장을 어렵게 하라"는 유지를 남겼다. 아들은 US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미국골프협회장을 지냈다. US오픈이 어려운 대회가 된 건 오크몬트 창립자 부자의 영향도 크다.

남자골프 세계 3위 랜디 쇼플러는 "여기선 매 홀이 전투이고, 매일이 전쟁"이라고 했다.

조던 스피스는 "페어웨이에 가지 못하면 파 하기가 매우 어렵고, 페어웨이에 가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2007년 양헬 카브레라의 우승 스코어는 5오버파다. 2016년 더스틴 존슨은 4언더파로 우승했는데, 비가 많이 와 그린의 물렁물렁한 편이어서 언더파 우승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다.

코스엔 300야드 가까운 파 3홀도 있고, 드라이버를 친 뒤 웨지를 잡아야 할 홀도 있다. 그래서 장타를 치는 상위 랭커 대신 정교하게 경기하는 의외의 우승자가 나올 수 있다. 토머스와 쇼플러는 "날이 건조해져 그린에 단단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러프는 5인치(12.7cm)로 잘랐는데, 현장에서 뜯어보니 20cm 가까웠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사우디 이적설 손흥민 "기다려 보는 게 맞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사진)은 다음 시즌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손흥민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0차전이 끝난 직후 믹스

트존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토트넘과) 계약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한다는 루머는 현지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맺은 계약이 내



년 여름이면 만료되는 상황에서 사우디 프로리그가 아시아 최고 스타인 손흥민을 영입해 아시아 시장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을 팔아 이적료를 남길 수 있는 적기는 울려름이다. "기자님들도, 팬들도, 나도 상당히 궁금하다"는 손흥민은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wear and tear; 손상, 마모

(As Roberta comes home from work Roger is hanging up the phone...)

(로버타가 퇴근해 집으로 오니 라저가 전화를 끊고 있다...)

Roberta: Hi honey. Who were you talking to?
로버타: 어보 나 왔어.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어?
Roger: Hi honey. That was Brian.
라저: 응 왔어. 브라이언 하고 통화한 거야.
Roberta: What did he want?
로버타: 무슨 일인데?
Roger: He's selling his car and he wanted to know if I was interested in buying it.
라저: 차를 팔려고 하는데 살 생각이 있느냐고.

Roberta: What did you say?
로버타: 그래서 뭐라고 했어
Roger: I told him I had to pass. His car is old. It has so much wear and tear.
라저: 안 사겠다고 했어. 그 차 오래됐거든. 무척 많이 낡았을 거야.
Roberta: I'm glad you said no. You don't want to buy someone else's problem.
로버타: 안 산다고 하길 잘 했어. 다른 사람의 골

치거리를 돈 주고 살 거야 없지.
Roger: Good point. How was your day today?
라저: 일리가 있는 말이야. 오늘 어땠어?
Roberta: Busy as usual.
로버타: 다른 때처럼 바빴어.
Roger: Well you're home and the weekend is here. Let's eat out tonight.
라저: 그래도 퇴근도 하고 주말도 됐잖아. 오늘밤은 나가서 먹자.

기억할만한 표현
▶*to pass (on something): 거절하다. 사양하다.
"I have to pass on the chocolate cake. I'm trying to lose weight." (초콜렛 케익은 사양해야겠어요. 몸무게를 줄이는 중이거든요.)
*good point: 좋은 지적이야. 일리가 있어.
Jim: "I think we should hire Ann as our secretary because she can speak three languages." (짐: 앤이 3개 국어를 하나씩 비서로 채용해야 되지 않겠어.)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로열쇠

(1) 올림픽 파위의 큰 체육 대회에서 경기장에 커 놓은 불. (2) 주 영양소가 아니면서 미량으로써 중요한 작용을 하는 유기 화합물. 예이, 비, 시, 디를 비롯하여 30여 종이 있다 (4) 줄기차게 내리는 크고 많은 비. 집중 ~ (5) 땅이나 종이 위에 말발을 그려 놓고 말을 많이 따거나 말 길을 막는 것을 다루는 놀이 (6) 짚이나 땀띠리 따위로 바구니와 비슷하게 엮어 만든 그릇 (7)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9) 병원 안에 있는 건물 한 채 한 채 (11)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12)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음.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 □□살□ (13) 거울에 비친 미인. 실속 없는 일. □중□□ (15)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짠 광택이 나는 피륙. 실크 (16) 한글 자모 ㄱ의 이름 (19) 팔죽 따위에 넣어 먹는 동글동글한 덩이 (21) 말을 기르는 곳 (22) 조선 시대에, 통행금지를 알리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치던 종 (23) 떡을 눌러 갖가지 무늬를 찍어 내는 판 (24) 요즘 날이 더워 온도계의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가조 (25) 자매 중 나이가 많은 쪽

세로열쇠

(1)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 (2) 때를 씻어 낼 때 쓰조 (3) 산에 나무나 풀 따위가 없어 변변한 산 (4) 위와 아래가 동글며 가운데가 잘룩한 모양으로 생긴 병 (5) 산을 사이에 둔 두 마을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낮은 이곳으로 왕래하였다 (8) 쇠를 끌어당기는 자기를 띤 물체 (10) 아내와 함께 동행함 (11) 공이 골 안으로 들어감 (12) 시골에 사는 촌스러운 사람. 고갱은 ~ 고흐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는 모던 보이였다 (13) 잡랄·수수 등을 재료로 밥풀만 하게 만든 한국 고유의 떡. 동글동글 빛은 ~에 흑담자와 팔고물을 묻혀 먹었다 (14) 향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부분. 말하지 않아도 좋을 사소한 것까지 속속들이 말하거나 캐묻는 행위에 '□□□□ 주알'이라는 말을 쓴다. (17) 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액운. 그놈은 ~이 들었는지 밤낮으로 싸다닌다 (18) 돌이 많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시냇물 (19) 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20) 산삼을 캐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2) 도장을 찍는 데 쓰는 붉은빛의 재료

스도쿠

			4	6				3
		3	8					9
	1						6	2
	7			4				
3							9	6
	5		3	9	2			
7		1			5			3
6				7		2		
9		4	2		3			



자료제공 = 울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5	9	7	3	1	2	4	8	6
1	8	2	4	7	6	5	3	9
6	3	4	5	8	9	1	2	7
7	4	8	2	6	3	9	5	1
9	1	6	8	5	7	2	9	3
2	5	3	9	4	1	6	7	8
8	2	9	6	3	5	7	1	4
4	6	1	7	2	8	3	9	5
3	7	5	1	9	4	8	6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6월
구
인
광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엇시티 Cafe June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무경력자
- 샌드위치 싸실 주말 가능한분 0명
- 금요일 주방에서 보조 하실분 0명
443-386-0515

엘리엇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슈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엘리엇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찬모/웨이츄레스/웨이더
부페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소지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엇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엇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폴/파타임, 배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골든 뷰 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엇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방 렌트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싱글룸 이층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방 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넷, 가구 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룸 뉴그랜드마트 근처, 욕실 딸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 하나 (출입구 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 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엇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 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요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엇시티에서 20분 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매입/현장매입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arketing Specialist :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regional, or nat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customer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Operate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patronizing habits, 40 hours/week. Master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Blue Bell Inc, dba Pure in Heart Nail Boutique at 700 O St NW, Washington, DC 20001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소지 가능
Email : employeehire13@gmai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제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 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바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 등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애난데일 신촌 설령탕에서 웨이츄레스 2명 급구합니다. (풀&파트타임)
240-253-3518

Falls Church 서울 프라이머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헬퍼야 주머남, 카운터 캐슈어 구합니다.
703-401-9879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엘리엇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찬모/웨이츄레스/웨이더
부페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허버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력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 불문 유경력자 캐슈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슈페이 가능
571-352-4938/Chimc.va@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플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폴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92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부스렌트,스킨케어원하시는분구함. 자세한사항은 문자,메세지다가는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구함 (일요일근무가능하신분)
703-750-2424 /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모십니다. -카운터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우대, 무경험자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강하실분/파/폴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폴타임 메트로 3분 동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구함
571-332-6110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가게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구합니다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센터빌 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구합니다. 화/금/토 저녁 6시-9시반까지 8세, 9세 아이들 돌봐주실분
201-684-8974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폴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홀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스폰서가능합니다.
571-422-718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시실분
703-473-6022.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홈렌트

스프링필드 타운하우스 End Unit \$3,000 방3, 화3.5, 집 전체 나무마루, Walkout

Basement, 새 페인트, 새 주방기기, Granite counter Top, SS appliances, 새 HVAC, Fenced backyard, 넓은 Deck, 밝고 환한집, 좋은 이웃들,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Costco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월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3,600 2020년에서은 새단지 새 타운하우스, 방4, 화5(full 3, half 2), 4층 구조, 탁트인 리빙룸,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2 Car garage, Loft top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 콘도 \$2,450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전부 업그레이드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새 창문) 고급 스크린 나무마루, Fence있는 뒷마당, 남향, 밝은집,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운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 HS) 2100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첼트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3.5, 차고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밝고 환한 콘도 렌트 방1, 화장실1,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넓은 리빙룸 \$1,600 (물값&가스값 포함)
▶703-477-3114

센터빌 밝고 환한 콘도 \$2,450 방2, 화2, 업데이트된 부엌, 리모델링 화장실, 고급스런 나무마루, 탁트인 부엌과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아담한 발코니, 세탁기, 건조기, Gated Community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 콘도 \$2,450

End Unit, 2층 구조, 모두 새 단장,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새 창문, Costco, Walmart과 가까운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료 \$800
703-577-3421 (문자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취사 가능,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가능
571-243-6295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 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료 \$1,100
▶301-928-4125

애난데일 중심가 싱글홈 방2 렌트, 부엌/화장실/입구 별도/주차 편리
703-395-4380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 렌트, 조지메이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터넷 유료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 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센터빌 CVS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Candel 아파트 5월, 6월, 7월 단기 서브 리스 합니다. 방1, 풀베스 1, 웨이 키친, 파킹티켓1, 월 \$800
571-623-0255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트 방2/새 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가능, 워크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낙낙
703-965-2343

스프링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넷 완비, 즉시 입주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인터넷 유료
443-631-7866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 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474-9713

첼트리 롯데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료, 취사, 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유도,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구인 / 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 kdclass2018@gmail.com (계재 증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애쉬번 타운 하우스 매매 \$670,000
▶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
▶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 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교,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 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 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 571-239-6054

Stafford 싱글 하우스 \$719,000
완전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 주택, 2011년에
지은 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 업그
레이드, 워크아웃, 넓은 데크, Stone Patio, 새
단지
▶ 703-813-8949

콘도 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
엿,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 룸,
DEN1, 넓은 발코니
▶ 703-813-8949

1. 사우스 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
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페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국토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 건조기, 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2, 페리오, 스크린 데크,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
린 앤드 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
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
▶ 571-239-6054

1. 페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2, 페어팩스 코스코 근
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페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쁜 집, 나무
마루, 넓은 뒷뜰
3. 페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 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 3.5, 랜트 수익 \$2,900
2. 레스톤 타운 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 2.5, 랜트 수익 \$3,000
3. 페어팩스 타운 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 3.5, 호수뷰, 차고2, 랜트 \$3,600
▶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렌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슴.
2. 매너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
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 703-483-0505

사업체 매매

치킨가게 양도 (한국 귀국)
1920 sf 현재 영업중 (알렌사드리아물)
주방 일체, 치킨 가게외 다른 업종도 가능
재정 상태 양호 하신분
703-338-1636 / 646-415-2347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
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
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져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sf, 29/66, 세븐일레븐 옆
▶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 571-239-6054

▶▶ 엔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 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캐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 성업중인 오토 리세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비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소니 카메라 - 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 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태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의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
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 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
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
인터넨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
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장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득/가스검사

JD STAR 소득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 443-280-1873

정스 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딩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충처리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뜰만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제 메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것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 계단
- 워크웨이
-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셉텀프 교체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분, 사실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가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 blinds.com / bbgb 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소름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으로
PCUSA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목회 5년이상 경험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본교단 P.I.F. 1부 (서식은 www.pcusa.org에서 다운로드)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 1부 (목회 경력, 가족사진 등 포함)
목회비전 1부 (신앙 간증문, 목회동기 및 목회철학, 교회사역 등 포함)
학위 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 및 목사안수 증명서 각 1부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요망)
최근 1년 내 설교영상 (2편, 링크)

제출처
Hope Presbyterian Church (Attn. 청빙위원회)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접수마감
2025년 6월30일(월) 23시 59분 까지 도착분에 한함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 후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6년 기간 위임 후 재청빙

문의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Attn. 청빙위원장)

HOPE CHURCH 한소망교회 청빙위원회 미국 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레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협조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속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ADT 시큐리티 알람서비스

“강도, 도둑도 방지, 예방이 최고입니다.”

소중한 집, 자산, 가족의 안전 보호는 ADT가 최고입니다.

남가주 최대 공인딜러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무료 초인종 카메라 전화기로 연결 가능

Since 1874
ADT
877.373.0265




2025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3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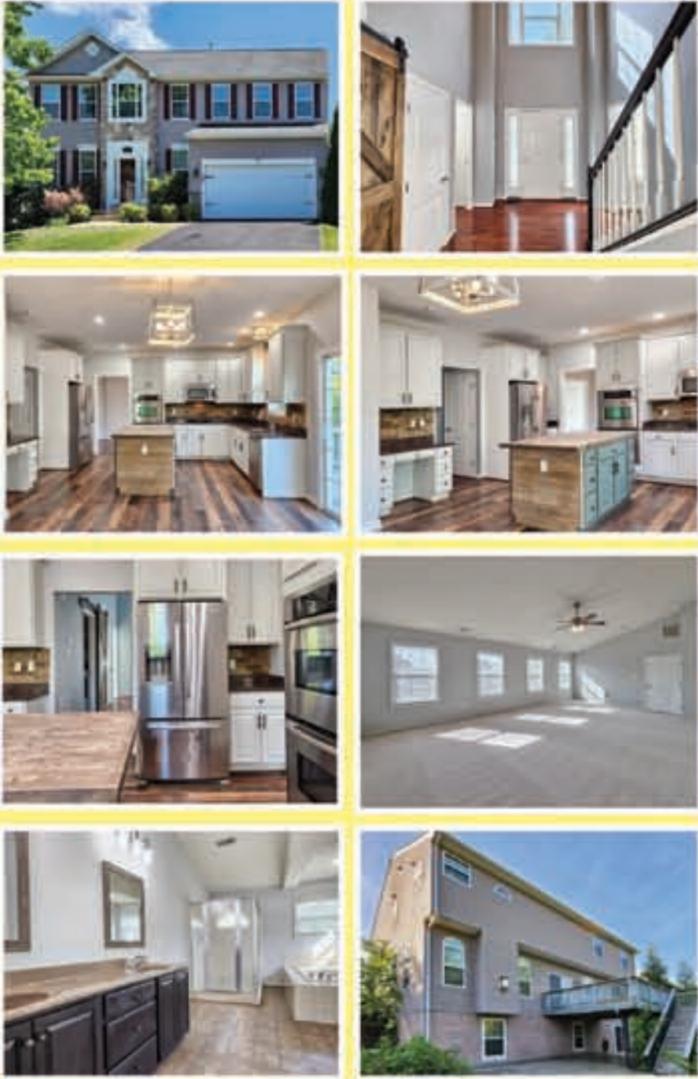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WesternAve.#100LosAngeles,CA90020 | TEL:213-272-6031

독점 Stafford 싱글홈

완전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2011년 지은 집, 방5, 화장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함, 워크 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719,900**



독점 Dumfries 타운홈

포토백강이 보이는 골프 단지에 위치한 새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방4, 화장3 1/2, 2022년 지어진 집, 4층 구조, 럭셔리 부엌, 나무 마루, Double Deck, 최고급 빌더 (Stanley Martin) **\$625,000**



독점 Annandale 타운홈

집 전체 완전히 리모델링한 밝고 예쁜집, 부엌, 화장실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 함, 교통 편리,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단지 **\$619,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54,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